

관계의 기술: 기꺼이기어이기대어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방귀희입니다.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도록 발간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시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를 조율하며 잠시 기다려주거나
기대어 서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이 늘 편안하고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2026년 첫 기획전인 이 전시는 장애예술을 둘러싼 창작의 현장에서
발견되는 협력과 연결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감각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참여 작가와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도록이 전시의 순간과 감각을
다시 마주하는 작은 기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와 관계의 가치를 다시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I am Bang Guihee,
Chairperson of the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I present the publication of the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exhibition catalogue.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joined us in making
this exhibition possible.

We form countless relationships throughout our lives. Sometimes we
hold hands and move in the same direction together, and sometimes
we adjust our pace, wait for one another, or lean on each other for
support. Not every moment is easy or smooth, but these are all
essential parts of living together as different individuals.

As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of 2026, this project was organized to
explore the forms of collaboration and connection that emerge within
creative practices surrounding disability art. This process does not
end simply with the completion of a single artwork. It is the process
itself—understanding one another’s differences, sharing senses
and experiences, and building time together—that carries profound
meaning.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staff members, and everyone who devoted their
time and care to this exhibition journey. I hope this catalogue serves
as a small record through which the moments and sensibilities of the
exhibition may be revisited, and 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ce
more on the meaning of living together and the value of relationships.

Thank you.



오디오로 듣기

박시내
모두미술공간

다정하고 날카로운 동료가 되는 방법

Park Sinae
Modu Art Space

How to Become a Tender and Discerning Companion



오디오로 듣기

기획의 글
Curatorial Statement

8

이 전시는 서로 다른 몸과 감각에서 비롯된 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장애예술이라는 작은 미술계 속에서 관계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를 전시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반복해서 뒤집히는 우정과 피로가 이 전시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동시에 결과였다. 이번 전시는 그런 재편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비장애인 중심의 미술계에서 종종 관계란 지나치게 매끈한 친밀함 속에서 감각된다. 서로의 평판과 위치를 공유하고,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는 허상 속에서 다져진 인맥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작동한다. 반면 장애예술은 기존 미술계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다. 모든 작가가 의도치 않게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한국에서 장애는 법적으로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누구의 삶도 하나의 유형 안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일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를 재단하지 않는다. 같은 장애를 경험하는 자라고 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의 경험은 전부 개인의 사연일 뿐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일이 더 시급한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나 위계는 하잘것없는 일이다. 그래서 친밀함은 ‘권력’이 되지 못한다. 대신 그것은 서로의 조건을 알아차리고 버티게 하는 ‘힘’이다.

그렇기에 장애예술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 미술계의 방식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작업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면 좋겠어요.” “일정을 생각하면 좀 더 속도를 내야겠는데요.”라는 말은 전혀 가닿지

This exhibition explores the ways relationships formed through different bodies and ways of sensing shape the texture of our lives. Within the intimate yet layered sphere of disability art, relationships often unfold in unexpected and unfamiliar ways, and finding a language capable of holding those dynamics became central to the exhibition itself. Friendships strained, reshaped, and renewed through moments of fatigue became both the process of making this exhibition and its final form. In many ways, this exhibition is a reflection on those moments when relationships are rearranged and made anew.

In the non-disabled-centered art world, relationships are often shaped through an overly polished sense of intimacy. Networks built on shared reputations, positions, and the illusion that everyone already knows one another tend to function as a form of unspoken privilege. Disability art, however, occupies a somewhat different place. Its artists often remain unintentionally distant from one another. In Korea, disability is legally divided into fifteen categories, yet no one's life can ever be fully contained within a single classification. Disabled people themselves understand this better than anyone, which is perhaps why they resist defining one another too easily. Sharing the same disability does not necessarily mean sharing the same understanding, because every experience ultimately belongs to the singular reality of an individual life. For those who must first focus on preserving the safety and continuity of their own lives, self-display and hierarchy hold little meaning. Intimacy, then, does not become a form of power. Instead, it becomes a force that helps people recognize one another's

9

박시내
Park Sinae

못한다. 대신 다른 것들을 건넌 수 있어야 한다. 한 시간째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작업 과정 속에 이동과 회복의 과정을 미리 셈해 두는 것, 여러 차례 이어오는 전화에도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 마감을 재촉하기보다는 작업에 진입하는 지난함을 함께 견디고, 누군가에게는 회의 시간보다 산책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을 알아차리는 일 등... 나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 속에서 신체와 마음이 가장 안전하게 몰입하기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말로 하지 않아도 미리 감각하는,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도 유연하고 한결같은 태도로 넘기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에 대한 전시 만들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두미술공간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장애예술인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다정하지만, 날카로운 동료가 되고 싶었다. 제도권 미술계에 속한 비장애인으로서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미술계의 체계와 작동 방식을 알려주고, 작가로서 필요한 태도와 감각을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기준이 모두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에 서로 속상하고 서운해했다. 작업의 속도와 방식, 소통의 리듬, 전시를 준비하는 감각까지 내가 ‘더 나은 방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불필요한 절차였다. 내가 ‘좋은 지원’이라고 여겼던 것들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질서와 속도에 누군가를 끼워 맞추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른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conditions and endure together.

Building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ng with disabled artists is therefore not simply a matter of slightly adjusting the conventions of the existing art world. Phrases such as, “It would be better to clarify the direction of the work,” or “We should move a little faster considering the schedule,” often fail to reach them altogether. What matters instead are different kinds of gestures: creating a place to wait for a taxi for the disabled, which has still not arrived after an hour; accounting in advance for the time needed for movement and recovery within the working process; responding with the same care even after repeated phone calls; enduring together the difficulty of entering into the work rather than pressing for deadlines; recognizing when someone may need a walk more than a quiet meeting. What is needed is a kind of *relational skill*—the ability to sense, even before words are spoke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a body and mind unlike one’s own to feel safe enough to fully engage; and to respond with flexibility and consistency even when one is unprepared. Any exhibition-making practice around disability art must begin from here.

When I started working at Modu Art Space, I felt a sense of mission. I did not believe my role was simply to unconditionally accommodate the requests of artists with disabilities. I wanted to be their kind yet incisive colleague. As a non-disabled person within the mainstream art world, I felt I had to be someone who, under the guise of support, could explain the art world’s systems and how they function, and who could guide them with kindness and patience toward

이들과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날카롭지만 다정하기는 어렵다. 다정하면서 날카롭기는 더 어렵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대략 수십 명의 장애예술인을 만났다. 비장애인의 삶에서는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밀도 높은 만남이었다. 비장애인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장애인은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고 멧쩍어 시선을 떨구는 낯선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두미술공간은 그 당사자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었고, 새로운 장애인이 계속해서 밀려들고 흩어졌다.

나는 그 안에서 예술에 대해 논해야 했다. 어지러운 몸들 앞에서 미와 추에 대해 골몰하는 것은 나를 위선자처럼 느껴지게 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들에게 지적으로 들릴지 두려웠고, 배려 없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혹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나 하나의 알량한 만족감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다. 결정적인 거부를 표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일전의 그 제스처가 불편함의 신호였다는 것을 뒤늦게 감지했을 때는 잠도 이루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언어는 단번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은 입안에서 계속 맴돌고, 여러 번 씹혔다가 겨우 흘러나왔다. 나는 늘 잘 버려진 언어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겨우 꺼낸 말들은 소의 여물처럼 호물호물했고 점점 더 뭉툭하고 서툴러졌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말들이 있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선 내뱉고 그 덩어리들을 가만히 바라보아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다. 빠른 이해와 모든 것의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그런 성찰과 반추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을 조금씩 배워갔다.

the attitudes and sensibilities necessary for an artist. However, the process of preparing an exhibition together was a journey of realizing that the standards I took for granted were not necessarily obvious to everyone. We felt hurt and disappointed by all the unexpected situations that arose. The pace and methods of work, the rhythm of communication, and even the sensibilities involved in preparing an exhibition—things I believed were the *better way*—were, to some, unfamiliar and unnecessary procedures. What I considered *good support* was likely just forcing someone to conform to a pre-established order and pace. From that point on, a different question arose: How, then, should I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se people? It is difficult to be sharp yet kind. It is even harder to be kind yet incisive.

While preparing for this exhibition, I met with roughly a dozen artists with disabilities. These were deeply meaningful encounters—the kind that are rarely experienced in the lives of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n a world filled with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ose with disabilities are often nothing more than strangers we happen to bump into in an elevator, causing us to look away awkwardly. However, the Modu Art Space was a place created specifically for them, and a constant stream of new artists with disabilities kept flowing in and out. I was tasked with discussing art within that world. To dwell on the notions of beauty and ugliness before those weary, restless bodies made me feel like a hypocrite. I was haunted by the fear that my words might sound like mere criticisms to them—or worse, that they were being perceived as thoughtless

아마 전시에서 말하고자 했던 ‘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채, 그럼에도 상대의 좌표를 더듬으며 어떻게든 이어 보려는 노력 말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뒤돌아 보았을 때 다만 약간 아쉬운 것은, 전시가 보여주는 돌봄과 의존의 방식이 너무 따스하게만 그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돌봄은 낭만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당연히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누군가의 걱정 어린 한숨이거나 자조 섞인 웃음이며, 당위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가깝다.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들, 원치 않는 말을 내뱉고 돌아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편함까지도 돌봄의 일부다.

실로 무조건적인 관계란 없다. 삶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고 유연하면서 양가적이다. 기대는 사람과 감당하는 사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관계를 쉽게 나눌 수 없다. 돌봄의 과정은 서로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다. 누군가는 타협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무언가를 포기했을 것이다. 장애와 돌봄의 관계란 긴장과 두려움, 안도와 친밀감이 끊임없이 재편되고 교차하는 이중의 감각이다.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 스티커를 붙이고 음성 해설을 제작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고 여전히 여의치 않다. 그러나 낮선 속도 앞에서 걸음을 늦추는 일, 익숙한 방향을 잠시 의심해 보는 태도, 약간은 버겁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관계 안에 남아 있으려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접근성이다. 그렇다면 다정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일인지 모른다.

demands. I constantly questioned whether I was imposing my own meager sense of gratification upon them. Though no one voiced a definitive refusal, the belated realization that a subtle gesture had been a signal of discomfort left me in sleepless turmoil.

At some point, language ceased to emerge all at once. Words lingered in my mouth, chewed over and over before finally spilling out. I have always been someone who aspires to speak with an incisive tongue. Yet, the words I managed to utter were as limp as a cow’s cud—becoming increasingly blunt and clumsy. Still, there were things that had to be said. Even if the outcome was poor, I had to cast out those heavy lumps of speech and simply observe them. I have gradually learned that this is a season for such reflection and rumination, rather than a time for swift understanding or resolution.

Perhaps the word, *relationships* this exhibition sought to articulate reside there: in the acknowledgment of our mutual opacity, and the persistent effort to trace the coordinates of the other, attempting a connection despite it all. Yet, in retrospect, there is a lingering regret that the modes of care and dependency were portrayed with perhaps too much warmth. Care is not an act to be romanticized; it inherently presupposes sacrifice. It is a worried sigh, a self-mocking laugh, and a burden of responsibility borne out of necessity. It encompasses the moments when one must shut their eyes tight to endure, and the sleepless guilt of having uttered words never meant to be said. This discomfort, too, is an inseparable part of care.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재편되는 관계 속에서 그 연결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참여 작가님을 덕분일 것이다. 우리의 서로 다른 감각과 속도, 생활 방식은 쉽게 맞물리지 않지만, 그 사이를 건너고 이어온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적된 시간이었다.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에 참여해 온 열여섯 분의 작가분들은 3년, 5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과나 성취 중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작의 과정을 지나왔다. 이들의 시간은 생산성과 효율의 논리 바깥에 있다. 특별한 성과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행위가 지닌 의미를 묵묵히 증명해 왔다. 김인규 선생님의 말씀대로, ‘수년 썩 스스로 미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왜 작가가 아니겠는가?’

등지의 워크숍은 작고 사소한 것들을 보듬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는 결과물보다 함께 머무는 시간, 우연히 오가는 대화, 서로의 속도를 조율하는 움직임들이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관계는 거대한 선언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흔들리는 몸짓과 사소한 제스처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등지는 아주 간단히 보여준다.

이정현의 ‘그림 악보’를 보고 있으면 자꾸 질문하게 된다. 어떻게 그린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안에는 분명 자신만의 감각과 질서가 있지만 타인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정현의 그림 악보를 보면서 정현의 세계를 상상해 본다. 끝내 번역되지 않는 언어를 품은 채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No relationship is truly unconditional. Life is fluid, not fixed; it is always ambivalent. We cannot easily separate those who lean from those who hold. Care is a shared state of endurance. One person compromises; another sacrifices. Between disability and care lies a dual sense of being, where fear and intimacy constantly overlap. While the infrastructure of accessibility—ramps, Braille, and audio guides—is indispensable and yet still lacking, we must also foster an internal disposition. This means slowing our pace for the unfamiliar, questioning our habitual directions, and staying present within the friction of the incomprehensible. Ultimately, we require access intimacy In this light, kindness is not a matter of unconditional acceptance, but the persistent commitment to a relationship even when understanding fails.

Despite everything, the fact that we were able to successfully bring the exhibition to a close is likely due to the artists, who held fast to those connections even as our relationships were constantly shifting. While our different sensibilities, paces, and ways of life do not easily mesh, what ultimately bridged the gaps and kept us connected was the time accumulated between us.

The sixteen arti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have spent three, five, or even more than ten years navigating a creative process that cannot be described in terms of results or achievements. Their time exists outside the logic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y have quietly demonstrated the significance of the act of continuing to draw, repeating the process,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even in the absence of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김진우의 작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나 익숙한 순서보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리듬을 더 가까이 따른다. 전시를 준비하며 그와 함께했던 여행 역시 많은 장소를 빠르게 지나가는 요즘의 여행과는 달랐다. 우리는 계속 기차 속에 머물렀고, 그를 믿고 모르는 길을 따라야 했던 초조한 시간들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다.

라움콘의 작업은 돌봄이 반드시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에는 피로와 불안, 역할의 역전 같은 취약한 순간들이 함께 존재한다. 라움콘의 워크숍은 안전과 즐거움을 모두 통제해야만 하는 담당자로서인 내게는 너무 아슬아슬한 방식처럼 느껴졌는데, 돌이켜 보면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같은 옷을 입고 손을 잡은 채 함께 걷는 일이었을 뿐.

선사랑드로잉회에게 장애의 몸은 교정이나 결핍의 대상이 아니다. 작가들은 각자의 신체 조건과 움직임의 적극적으 활용하며 새로운 드로잉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작업은 몸의 한계를 증명하기보다 몸이 지닌 고유한 감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새로운 제안 앞에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익숙한 방식을 기꺼이 흔들어 준 작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 참여한 장애예술인들이 보여준 것은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완전한 이해도 무조건적인 돌봄도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specific achievements. As Kim Ingyu said, “Why shouldn’t those who have been pursuing their own artistic endeavors for a decade or more be called artists?”

Dungji’s workshop begins with an embrace of the small and the seemingly insignificant. In this space, the final outcome is secondary to the shared presence, the serendipitous flow of conversation, and the gentle choreography of moving at one another’s pace. Dungji simply yet profoundly illustrates that relationships are not forged through grand declarations or monumental events, but within the subtle tremors of a movement and the quietest of gestures.

Gazing upon Lee Jeonghyeon’s *Pictorial Scores*, one is struck by a persistent curiosity: How were these created? What occupied her thoughts? Within these works lies an idiosyncratic logic and sensitivity that resists complete comprehension by an outsider. Nevertheless, through these scores, we are invited to imagine her world. Embracing a language that remains inherently untranslatable, she establishes a profound connection with the world in her own unique way.

The work of Kim Jinoo is rooted in an autonomous stance: the decision to curate his own preferences and existence. Eschewing societal norms and established patterns, he adheres to a rhythm dictated by his own senses. The voyage we shared for this exhibition stood in stark contrast to the fast-paced, destination-driven travel of today. In the prolonged stillness of the train and the vulnerable periods of following him into the unfamiliar, a transformation occurred—our shared uncertainty became the foundation of our friendship.

속도를 맞추고, 오해하고, 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흔들림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글의 시작에서 ‘비장애 중심의 미술계’라는 다소 이상한 표현을 썼지만, 나는 언젠가 이런 세계를 나누는 선이 흐려지고 사라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 하나의 세계에 살아가는 일을 낯설어하지 않기를. 접근성이 전시를 보완하는 형식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되기를. 타인의 방향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좌표들이 만나는 지도를 그리는 일에서 나의 날카로움이 시작될 수 있기를.

laumkon’s work shows us that care is not just about feeling warm and secure. It honestly captures the fatigue, the worry, and those vulnerable moments when roles are reversed. As someone who had to manage every detail of safety and fun, I found their approach quite nerve-wracking at first. But looking back, I realize they were not doing anything dangerous. They were just showing us what it means to wear the same clothes, hold hands, and walk side by side.

Sunsarang Drawing Group refuses to view the disabled body as an object of correction or deficiency. Instead, they actively harness their unique physical conditions and movements to forge entirely new methodologies of drawing. Rather than proving the body’s limitations, their work questions the infinite reach of its inherent senses. Most of all, I wish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artists, who moved their bodies without hesitation in the face of new proposals and willingly disrupted their familiar rhythms.

What the disabled artists in this exhibition have shown us is a way of continuing relationships. In a world devoid of both absolute understanding and unconditional care, we constantly adjust our pace to one another, misunderstand, and reconnect. And to live, perhaps, is to never give up on this very trembling. Though I used the somewhat peculiar expression *non-disabled-centric* art world at the beginning of this text, I hope that someday the lines dividing such worlds will blur and dissolve. I hope that none of us will feel estranged from living together in a single world; that accessibility will become

not a mere format to supplement an exhibition, but a way of creating artwork and forging relationships; and may my own incisiveness stem not from dictating the direction of others, but from mapping the very points where diverse coordinates intersect.







모두미술공간 접근성 안내

모두미술공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예술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전시실 입구의 오픈런에는 접근성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전시 안내 리플릿, 읽기 쉬운 리플릿, 점자 리플릿, 닷패드, 필담노트, 색약 보정 안경이 있습니다.

음성해설

QR코드를 통해 작가와 작품 정보, 주요 시각적 요소를 묘사하는 음성 해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작품 <함께 조각>,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와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에는 대사와 안물의 동작, 화면 전환 등 주요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 화면해설을 제공합니다. ♡

접근성 스태프

안내데스크와 전시실 곳곳에 접근성 스태프가 있습니다. 음성 혹은 준비된 필담 노트를 통해 소통이 가능합니다. 전시 관람 및 접근성 지원 기기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닷패드

시각 정보를 뛰어난 점으로 표현하는 촉각 디스플레이



필담 노트

철저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도구



색약 보정 안경

색약 사용자가 색의 차이를 더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특정 파장의 빛을 조절해주는 보조 안경



점자 리플릿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제작된 안내 리플릿



리플릿

전시의 기본 정보를 담은 안내 리플릿



읽기 쉬운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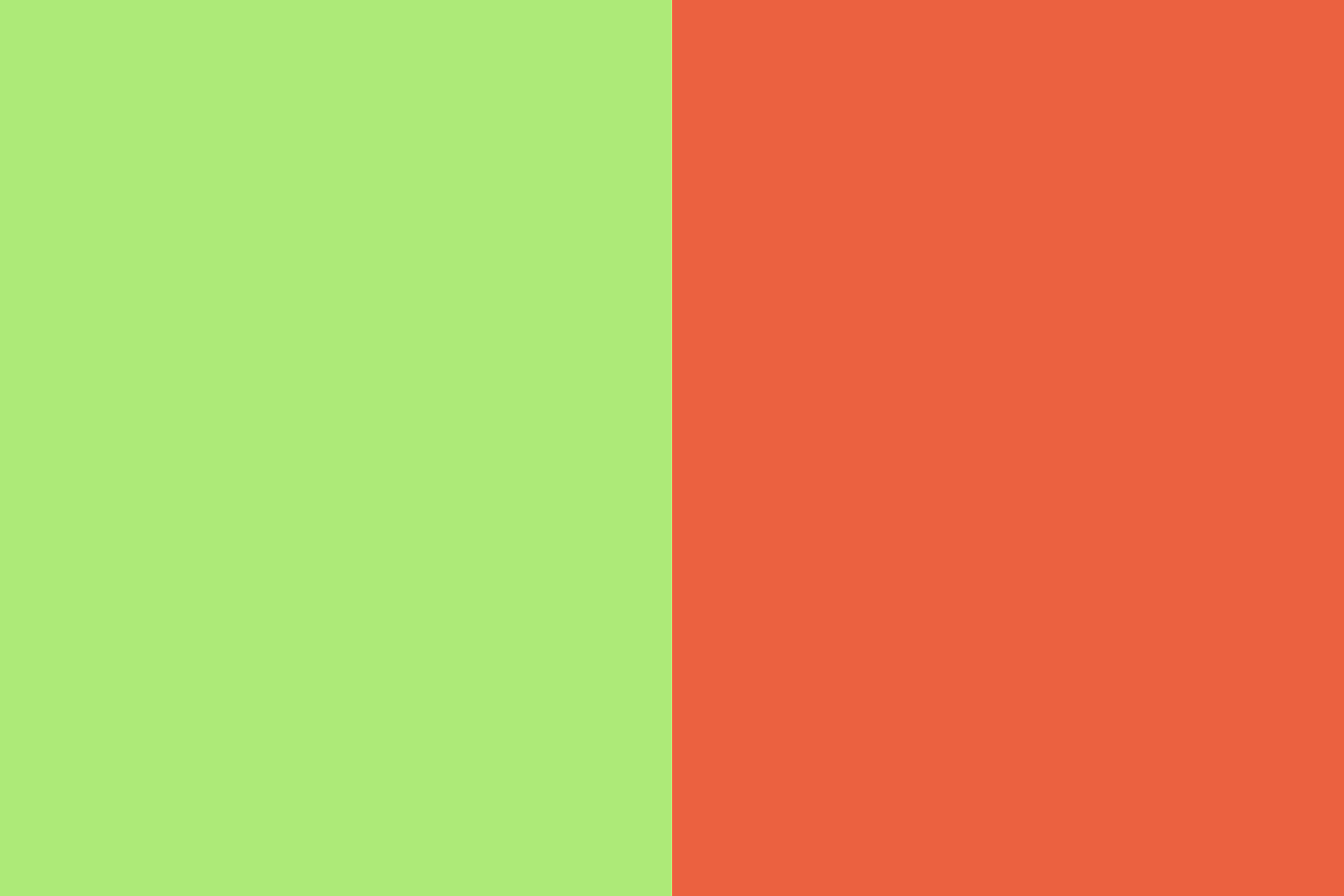
간단한 문장과 큰 글자로 제작된 안내 리플릿











37	이해수	기댐의 미학: 자립의 신화 너머, 장애예술이 여는 틈
49	유시아	섬과 섬 사이, 우리가 놓은 다리에 대하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삶을 새롭게 상상하기
37	Lee Haesoo	The Aesthetics of Leaning: Beyond the Myth of Independence, the Interstices of Disability Art
49	Ryu Sia	Between Islands: On the Bridges We Build Together – Reimagining Life Across Disability and Difference



이해수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연구교수

기댐의 미학: 자립의 신화 너머, 장애예술이 여는 틈

Lee Haesoo

Research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e Aesthetics of Leaning: Beyond the Myth of Independence, the Interstices of Disability Art



오디오로 듣기

1. 근대 미학의 해체, 장애예술의 존재론적 전환

근대 미학은 예술가를 선천적 재능을 지닌 존재로 규정했다. 이 관점에서 예술적 영감은 외부의 조력과 절연된 개인의 역량이며, 작품은 그 역량이 물리적으로 조형된 순수한 결정체다. 장애예술 역시 이러한 주류 예술 문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시혜의 시선에서 벗어나 전문 예술가로서 권리를 승인받기 위해, 작가들은 작품을 오롯이 개인이 성취한 결과물로 인정받고자 분투해 왔다.

그러나 자율성과 독창성이 예술 생산의 절대 조건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다. 동시대 미술은 작가의 권위를 해체하고 대화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미학을 정립해 왔다. 작가는 자신만의 세계가 투영된 오브제를 생산하기보다 이질적이고 다층적인 세계와 관계 맺으며 그 안에서 배양되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술계의 이러한 지각 변동은 장애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청한다. 모든 창작이 본질적으로 소통과 교섭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라면,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과정에서 마주하는 긴밀한 연결과 협업은 미학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근대 미학이 은폐해 온 인간의 실존 조건, 즉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현현에 가깝다.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는 창작의 영토를 점령해 온 독창성의 유령을 걷어내고 그 과정에 스민 수많은 ‘기댐’을 미학의 중심부로 끌어올린다. 전시는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활동가 간의 수평적 협력과 예술 공동체가 쌓아 올린 시간의 커를 조명한다. 관객의 참여를 거쳐 완성되는 작품은 물론, 기술·물질적 인프라나 사회적

1. The Ontological Turn in Disability Art

Modern aesthetics defined the artist as a being endowed with innate talent. From this perspective, artistic inspiration is an individual's capacity, isolated from external assistance, and a work of art is the pure crystallization of that capacity, physically shaped into form. Disability art has not been free from this mainstream artistic framework either. To escape the gaze of charity and gain recognition of their rights as professional artists, disabled artists have struggled to have their works acknowledged as achievements solely of the individual.

However, the belief that autonomy and originality are absolute prerequisites for artistic production is nothing more than a myth. Contemporary art has deconstructed the authority of the artist and established a process-oriented aesthetic centered on dialogue and collaboration. Rather than producing objects that reflect their own private worlds, artists explore the possibilities that emerge by engaging with heterogeneous and multilayered worlds. This seismic shift in the art world calls for a fundamental reorientation in how we regard disability art. If all creation is essentially an act that unfolds within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 the connections and collaboration that disability artists encounter in their creative process cannot constitute grounds for aesthetic disqualification. Rather, they come closer to an epiphany, an honest revelation of the existential conditions of being human that modern aesthetics has concealed: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exhibition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clears away the specter of

지지망처럼 보이지 않는 조건들이 얹혀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펼쳐낸다. 이 모든 마주침의 여정은 ‘관계의 기술’이라는 미학적 성취로 선언된다.

장애예술은 ‘함께 있음’을 추동하는 공동의 경험이다. 작가는 단독적 세계의 빗장을 풀어 타자를 초대하고, 관객과 활동가는 그 미지의 세계에 닿기 위해 자신의 신체와 시간을 동기화한다. 이 상호 진입의 순간, 서로 다른 주체들은 기꺼이 기대어 동행하는 ‘함께 하기’를 발명해 낸다. 이 점진적인 연결의 끝에서 예술은 고립을 허무는 호혜와 돌봄의 장으로 거듭난다.

2. 과정이 여는 ‘틈’의 미학

전시 «관계의 기술»의 미학적 성취는 ‘틈’이라는 개념을 경유할 때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틈은 해체와 연결의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 흔치 않은 단어다. 그것은 ‘틈이 벌어졌다’와 같이 공간의 균열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틈이 필요하다’와 같이 회복을 위한 시간적 거를을 함축한다. 이러한 틈의 속성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교차한다. 틈은 너와 나의 사이에서 발생한 심리적 거리감을 뜻하지만, 이 거리감은 고립과 단절에 머물지 않으며 ‘어울려 있는 여러 존재의 사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여백으로 전환된다. 이렇듯 틈의 다의적인 성격은 완결된 구조에 생긴 물리적인 결손이나 공백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얹히는 생성과 순환의 시공간임을 보여준다. 스스로 온전할 수 있다는 개인의 경계에 균열이 생길 때 타자가 들어설 자리가 마련되고, 그 사이-공간에서 고립을 허무는 새로운 매듭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originality that has long occupied the territory of creation, drawing the countless acts of *leaning* steeped in that process into the very center of aesthetics. The exhibition illuminates the horizontal collaboratio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artists and the layered strata of time an artistic community has built up. It offers a full-dimensional look at works completed through audience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process by which invisible conditions — technical and material infrastructures, social networks of support — become entangled and sublimated into art. This entire journey of encounters is declared an aesthetic achievement: the art of relation as implied in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isability art is a shared experience that propels being-together. The artist unbolts the gate of a solitary world to invite the other in, while audiences and activists synchronize their own bodies and time to reach that unknown world. In this moment of mutual entry, distinct subjects invent a doing-together, willingly leaning on one another as they travel side by side. At the end of this gradual connection, art is reborn as a field of reciprocity and care that dismantles isolation.

2. The Aesthetics of the “Interstice” Created by Process

The aesthetic achievement of the exhibition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cquires concrete meaning when approached by way of the concept of the *Interstice*. An interstice is an uncommon word that holds within it both the sense

장애예술은 틈이 만든 사이-공간이 고유한 미학적 문법으로 번역되는 장(場)이다. 이곳에서 장애예술인과 조력자 사이의 사소해 보이는 대화는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 작품의 이행 과정을 이끄는 동역학으로 작동한다. 동시에 이들의 현장은 효율과 신속성을 앞세우는 사회적 속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취약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을 실천 동력으로 삼는다.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매개자가 만나 상이한 신체 언어를 번역하는 시간은 결코 매끄럽지 않다. 그러나 오독과 지연을 감내하며 주파수를 맞춰가는 과정은 결과 중심의 미학적 관습을 넘어서는 틈의 시간이 된다. 나아가 이 틈은 엘리트주의 예술이 독점해 온 권위의 중심부를 거두어내며 다차원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완고한 미학적 규칙이 물러난 그 틈새에서 주체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공명하며, ‘다른 몸’들이 기대어 발명해 낸 감각과 경험을 밀도 있게 채워나간다.

장애예술이 틈의 미학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예술을 둘러싼 제도적 시선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은 여전히 재활 및 심리 치료의 수단이나 복지 영역의 보조적 활동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틈의 미학은 장애예술을 시혜적 프레임으로부터 단호히 분리해 낸다. 이 새로운 지평 위에서 장애 당사자의 신체적 리듬을 세밀하게 살피는 돌봄의 그물망, 이를 지탱하는 기술적 토대와 매개자들의 조력은 전혀 다른 미학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들의 ‘기댐’은 장애예술인의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무력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단독적 창작자를 신성시해 온 근대 미학의 주체 개념을 전복하며, 관계망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출현하는 다성적

of dismantling and of connection. It points to a spatial state of rupture, as in *an interstice has opened up*; at the same time, it implies a temporal pause for recovery, as in *a moment to breathe*. This quality of the interstice runs identically through human relationships. A interstice can mean the psychological distance that arises between you and me, yet this distance does not remain in isolation and severance; it turns into a relational margin that makes possible the space among many beings in company with one another. In this way, the interstice's plurality of meaning shows that it is not a physical deficiency or void in a completed structure, but a space-time of generation and circulation where other beings become entangled. For when a crack appears in the boundary of the individual—the belief that one can be whole alone—a place is made for the other to step in, and in that in-between space a new knot begins, dismantling isolation.

Disability art is a field where interstices translate into a distinctive aesthetic grammar. Within this space, the minor conversations between disabled artists and their collaborators operate not merely as episodes but as dynamics that drive the process of artistic realization. This field of practice withdraws from the social tempo that prioritizes efficiency and speed, instead grounding its momentum in the mutual interdependence that emerges from shared vulnerability. The encounter between disabled artists and non-disabled mediators, translating across divergent bodily languages, is never seamless. Yet the process of attuning frequencies while enduring misreading and delay becomes a time of interstices that exceeds result-oriented aesthetic conventions.

주체(Polyphonic Subject)의 탄생을 알린다. 단독적 주체의 성벽을 허물고 서로의 신체 언어와 물질적 조건들이 얹힌 공동의 삶을 조형해 내는 것이다. 상호의존성 속에서 빚어지는 관계망은 장애예술을 하나의 장르로 묶어 두는 관성을 깨뜨리고 이 장애 연루된 모든 주체의 세계를 확장하는 해방적 계기를 마련한다.

3.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이 정초하는 몸말들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간의 조건으로 설정해 온 근대적 주체 모델 속에서 취약성(vulnerability)과 의존성(dependence)은 오랫동안 개인의 결함이나 무능력을 가리키는 낙인이었다. 이 같은 인간관은 기능적으로 온전한 보편적 신체를 돌봄의 주체로 위치시키는 반면, 장애인을 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 객체로 규정했다. 지배적 상상력 안에서 장애의 몸은 특수하고 예외적인 취약성 영역으로 밀려나고 극복해야 할 비정상성으로만 고정되어 왔다.

이에 맞서 페미니즘 윤리학은 주체성을 연결과 관계 속에서 재구성하며 취약성이 인간 공통의 토대임을 천명한다. 자족적으로 완전해 보이는 주체 역시 삶의 매 순간 타인의 돌봄과 사회적 인프라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홀로 태어나 제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에 우리는 모두 본디 취약하고 의존적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적 전환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사유에 이르러 한층 더 전위적인 정치성을 띠게 된다. 버틀러는 취약성이 모두의 실존적 조건임을 인정할 때 새로운 연대가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 삶의 위태로움과 유한성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Moreover, this interstice dismantles the center of authority that elitist art has monopolized, enabling multidimensional circulation and exchange. Within that fissure where rigid aesthetic rules have receded, subjects resonate freely, unbound by convention, densely weaving the senses and experiences that different bodies have invented through their mutual leaning and reliance.

Disability art should be theorized through an aesthetics of interstices precisely because it can destabilize the institutional vision surrounding it. The artistic activities of disabled people continue to be treated as means of rehabilitation and psychological therapy, or relegated to auxiliary functions within the welfare domain. However, an aesthetics of interstices cleanly separates disability art from the framework of benevolence. On this new horizon, a new aesthetic significance is granted to the infrastructure of care—the attentive support for bodily rhythms, technical systems, and collaborators' assistance. Their *leaning* no longer damages or neutralizes the agency of disabled artists. It subverts the concept of the subject in modern aesthetics that has sanctified the singular creator, announcing the birth of a polyphonic subject that emerges anew within relational networks. It demolishes the fortress walls of the singular subject, sculpting a shared life in which each other's bodily languages and material conditions are entwined. The relational networks forged within interdependence break the inertia that binds disability art into a single genre, providing all subjects implicated in this field with an emancipatory moment that expands their worlds.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무력함에 가두지 않고 외부의 폭력과 불평등에 맞설 상호 책임과 연대의 끈을 소환하기 때문이다.

주체성을 취약성과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재구성하려는 철학적 기획은 앞서 정의한 틈의 미학과 필연적으로 공명한다. 틈의 미학이 주체들 사이의 만남과 대화, 교감을 본질로 삼는다면, 그 관계를 촉발하는 동력은 다름 아닌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존재론적 취약성이기 때문이다. 타자와 조우하고 어우러지는 틈새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예술은 인간이 서로의 불완전함에 기대어 사는 존재임을 드러내며 보편적 상호의존성을 감각하게 한다.

틈의 렌즈를 통과한 장애예술은 비장애 중심 사회의 오만을 뒤엎는 강력한 비평적 실천이 된다. 장애예술은 주류 사회가 무능력과 수동성으로 간주해 온 취약한 몸을 미학적 전선으로 끌어올린다. 나아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매개자가 창작의 순간마다 얹히고 기대는 과정은 능력주의적 자립 신화에 균열을 내며 상호의존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

그 연장선에서 전시 «관계의 기술»에 놓인 작품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도움이 아니라 서로의 신체와 감각을 기꺼이 내어주는 ‘함께 돌봄(caring-with)’의 창작 과정을 통해 빛어졌다. 조안 트론토(Joan Tronto)의 지적처럼 함께 돌봄은 돌봄의 주체와 대상이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불완전함을 마주할 때 성립한다. 예술가와 매개자가 서로의 빈틈을 내어주고 채우며 공동의 미학을 일구는 전시 풍경은, 장애를 불능의 영역에 가두던 왜곡된 시각을 거두어내고 취약한 신체들의 공생 가능성을

열어낸다. 예술이라는 무대 위에서 보살핌과 의존이 시혜가 아닌 상호 존중과 연대의 에토스(ethos)로 전환됨으로써, 전시는 우리 사회가 나누어야 할 함께 돌봄의 감각을 구체화하는 급진적인 공간으로 확장된다.

4. ‘말 걸기’와 ‘듣기’의 틈에서 피어나는 장애예술

장애예술은 창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통과 관계 맺음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안는다. 이 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각자의 취약성을 감당하며 무수한 어긋남을 겪는다. 장애의 몸말은 지배적 규범의 언어에서 비껴나 있어 늘 타자에게 온전히 닿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버틀러는 이 불투명함(opacity)이야말로 소통이 출현하는 자리라고 선언한다. 그에 따르면 소통 과정에서 얹의 불투명성과 무지(unknowingness)는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토대다. 오히려 타자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환상에 도취해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길 중단할 때 윤리적인 만남은 축소된다. 장애예술을 미술치료나 복지의 틀에 가두는 접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소통을 차단한다. 장애예술인을 수혜자로 낙점해 둔 채 말을 건네기 때문이다. 비대칭적 위계가 선점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들어설 자리가 없다.

반면 틈의 현장에서는 완전한 대답을 구하지 않는 ‘말 걸기’와 침묵의 속도까지 헤아리는 ‘윤리적 듣기’가 교차한다. 장애예술인과 활동가, 이들의 걸을 지키는 조력자들이 장기간 나눈 대화, 함께한 식사, 공동의 창작 시간은 창작의 본령이 된다.

3.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as the Foundation of Embodied Utterances

Within the modern subject model that has positioned independence and autonomy as fundamental human conditions, *vulnerability* and *dependence* have long functioned as stigmas marking individual deficiency and incapacity. This humanistic framework has situated the functionally intact, universal body as the subject of agency, while positioning disabled people as dependent objects perpetually in need of care. Consequently, the dominant imagination has pushed the disabled body to the margins as a particular and exceptional sphere of vulnerability, fixing it solely as an abnormality to be overcome.

Against this, feminist ethics reconfigures subjectivity within connection and relationality, declaring that vulnerability is the shared foundation of humanity. Even the subject that appears self-sufficient and complete lives at every moment in dependence on the care of others and social infrastructure. Because no human exists who is born alone and can live solely on their own, we cannot escape the condition of being fundamentally vulnerable and dependent. This epistemic shift attains an even more transgressive politics in Judith Butler’s thought. Butler paradoxically argues that solidarity becomes possible only when we acknowledge vulnerability as a shared existential condition. The perpetual exposure to the precariousness and finitude of life does not confine us to powerlessness; rather, this very sensation summons the bonds of mutu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ith which to confront external

violence and inequality.

The philosophical project of reconstructing subjectivity through the relations of vulnerability and interdependence necessarily resonates with the aesthetics of interstices defined here. Since the aesthetics of interstices takes encounter, dialogue, and attunement between subjects as its essence, the impetus that triggers such relation is none other than the ontological vulnerability of *not being able to be completed alone*. Art that acquires meaning in the interstice where subjects encounter and interweave with one another discloses that human existence is one of living leaned upon by the incompleteness of others, allowing us to apprehend universal interdependence.

Through the lens of interstices, disability art becomes a powerful critical practice that overturns the arrogance of non-disabled-centric society. Disability art elevates the vulnerable body that mainstream society has long regarded as incapacity and passivity to an aesthetic frontier. Moreover, the process in which disabled artists and non-disabled mediators entangle and lean on each other at every moment of creation cracks the myth of ableist independence, revealing the true value of interdependence.

The works presented in the exhibition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were forged through a creative process of *caring-with* in which neither party offers unilateral help, but rather both willingly offer their bodies and senses to one another. As Joan Tronto points out, caring-with is not constituted by a binary division between the subject and object of care; it is established when all parties

장애의 몸말에 귀 기울이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각기 다른 감각을 조율하며 친밀함에 이르는 과정은 긴 호흡을 요구한다. 이 시간을 통과하며 이들의 언어는 비로소 구체적인 질감을 획득한다. 불투명함을 견디며 쌓아 올린 관계의 두께는 결과에만 주목하는 관행을 넘어 장애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미학적 성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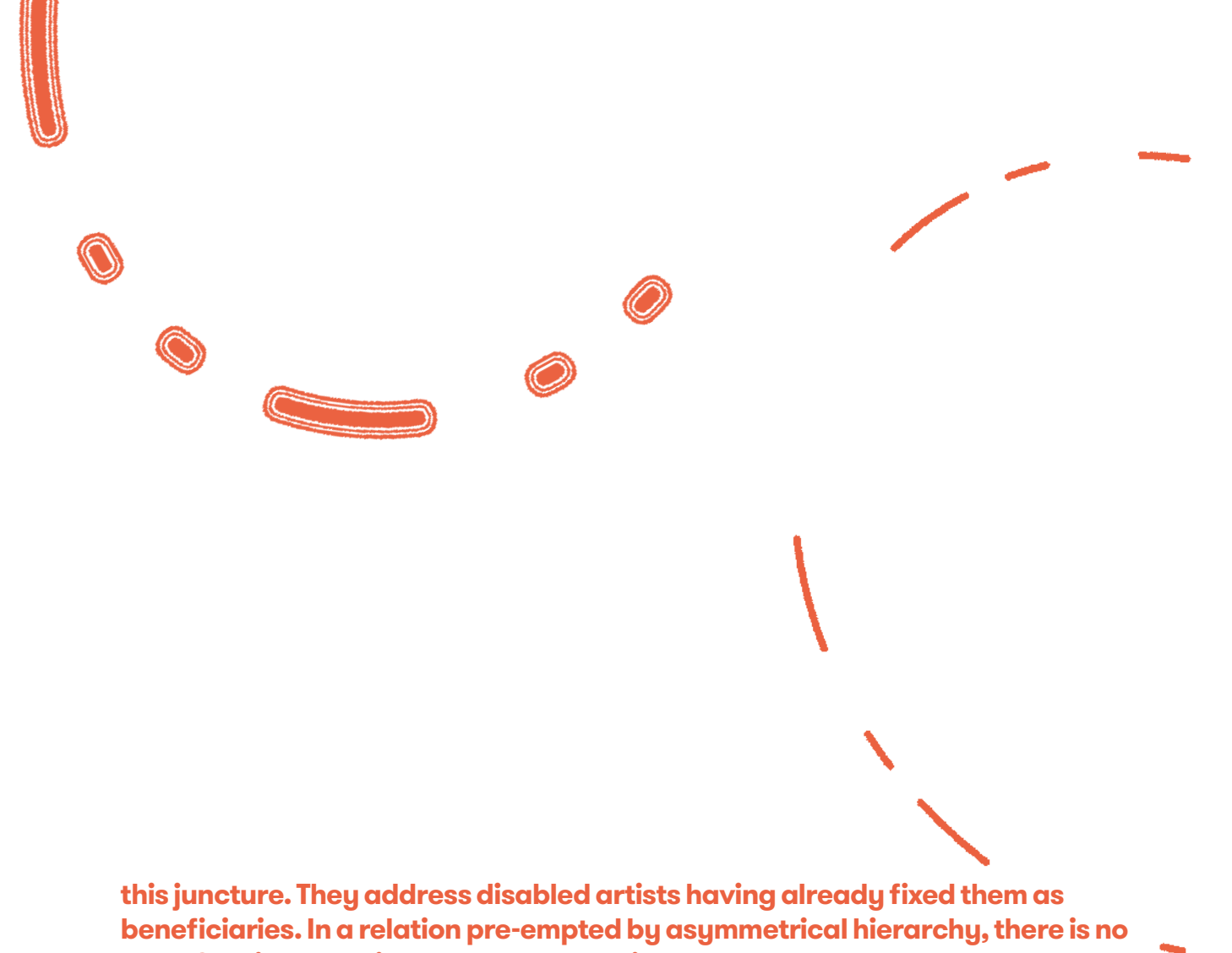
이 현장에서 소통은 말의 형태를 넘어 몸과 몸이 얹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가령 각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거대한 캔버스 위에 몸을 밀착하는 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언어의 한계를 넘어 직접적인 대화로 기능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드로잉에 앞서 몸을 맞대는 위밍업에서부터 온몸을 선과 면으로 던져 한 화면에 몸을 섞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고립된 개인의 독백이 아니다. 캔버스에 남은 흔적과 겹겹이 쌓인 색채는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주고받은 대화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투영한 지도다.

장애예술을 지탱하는 소통과 돌봄은 자칫 화해롭고 아름다운 연대로만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이 틈의 연결망은 아슬아슬하고 울퉁불퉁한 시간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가의 장애 유형과 각자 소통 방식에 따라 작업 양태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몸들의 부딪힘과 어긋남을 헤아리느라 생기는 지체와 침묵은 효율적인 협업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그 불협화음 속에서 어떻게든 화음을 도출하려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때로 박자가 어긋나고 음이 이탈할지라도 연루된 이들은 서로를 놓지 않으려 분투한다. 이 불완전하고 소란스러운 과정에서 공동의 연결망은 더욱 단단해진다.

confront their respective incompleteness. The scene of the exhibition, where artists and mediators yield to and fulfill one another's interstices to cultivate a shared aesthetic, dismantles the distorted perspective that confines disability to a realm of inability and opens up possibilities for the symbiosis of vulnerable bodies. As care and dependence are transformed on the artistic stage from mere charity into an ethos of mutual respect and solidarity, the exhibition expands into a radical space that embodies the sense of collective care our society should share.

4. Disability Art in the Interstices of Address and List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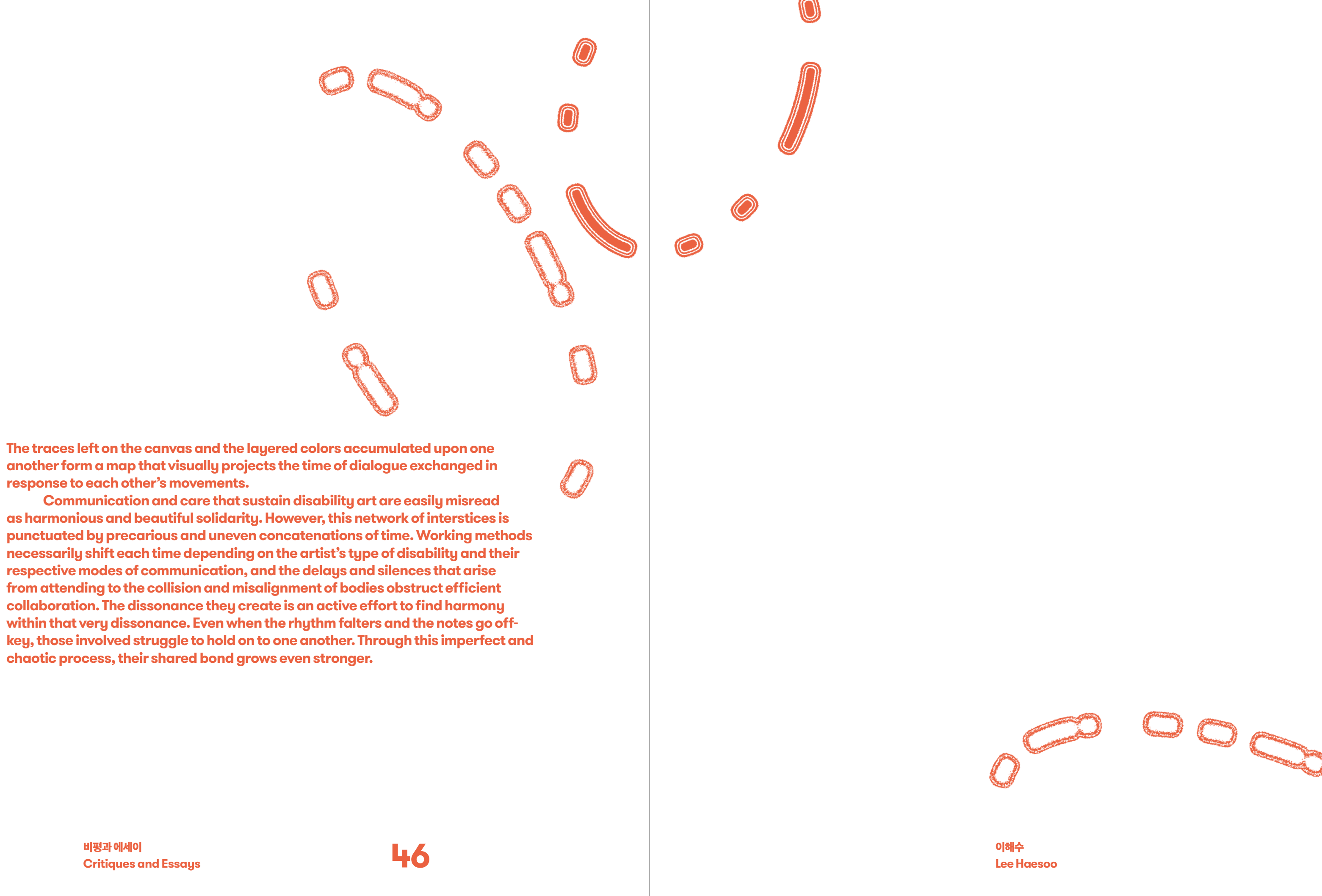
Disability art embraces the communication and relationality surrounding creation as an artistic domain.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is communication endure their respective vulnerabilities and experience countless misalignments. The embodied language of disability deviates from the language of dominant norms, failing to fully reach the other. Yet Butler declares that this very opacity is the site where communication emerges. According to her, the opacity of knowing and unknowingness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are not failures and frustrations; they are the foundation that solidly binds the relation between I and you. Conversely, when we become intoxicated with the illusion of perfectly understanding the other, ceasing to ask who you are and to explain who I am, the ethical encounter contracts. Approaches that confine disability art to the frameworks of art therapy or welfare block communication at precisely



this juncture. They address disabled artists having already fixed them as beneficiaries. In a relation pre-empted by asymmetrical hierarchy, there is no room for dialogue aimed at understanding one another.

In contrast, at the site of interstices, *initiating dialogue* that does not seek complete answers intersects with *ethical listening* that even measures the pace of silence. The conversations long shared between disabled artists and activists, the meals taken together, the time spent in collaborative creation with those who stand beside them—these become the true substance of artistic practice. Attuning different senses to open the channels of dialogue, listening to the embodied language of disability, and arriving at intimacy require a sustained temporal rhythm. Passing through this time, their language acquires concrete texture. The thickness of relations built by enduring opacity is an aesthetic achievement that disability art can reach, one that exceeds practices attending only to outcomes.

In the field of disability art, communication extends beyond the form of language to encompass acts in which bodies press together and converge. For instance, the act of each person descending from their wheelchair and pressing their body against a vast canvas demonstrates the moment when physical contact functions as direct dialogue that transcends the limits of language. From the warming-up where bodies are brought together before formal drawing, to the act of throwing one's entire body as lines and planes and mingling bodies on a single surface—all these processes are not the soliloquy of an isolated individual.



The traces left on the canvas and the layered colors accumulated upon one another form a map that visually projects the time of dialogue exchanged in response to each other's movements.

Communication and care that sustain disability art are easily misread as harmonious and beautiful solidarity. However, this network of interstices is punctuated by precarious and uneven concatenations of time. Working methods necessarily shift each time depending on the artist's type of disability and their respective modes of communication, and the delays and silences that arise from attending to the collision and misalignment of bodies obstruct efficient collaboration. The dissonance they create is an active effort to find harmony within that very dissonance. Even when the rhythm falters and the notes go off-key, those involved struggle to hold on to one another. Through this imperfect and chaotic process, their shared bond grows even stronger.



유시아
**섬과 섬 사이,
우리가 놓은 다리에 대하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삶을 새롭게 상상하기**

Ryu Sia
**Between Islands:
On the Bridges
We Build Together
- Reimagining Life
Across Disability and
Difference**



오디오로 듣기

종종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외딴 섬에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물자와 지원을 조달받을 수 있음에도 육지의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긴 힘들다. 비장애인인 상대방은 똑같이 비장애인인 사람을 대할 때와는 다른 태도로 나를 대한다.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어투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묻거나, 초면인 나를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울 만큼 밝게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라며 격려하는 말이 돌아오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그 순간 평범한 대화 상대가 아닌 ‘장애인’이라는 별도의 섬으로 분류된 느낌을 받는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끔 방문해 주어야 하는 섬.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섬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섬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산다. 어떤 다리는 돌로 튼튼하게, 어떤 다리는 줄로 아슬아슬하게, 어떤 다리는 물 위의 징검돌처럼 건너뛰어야 하는 형태로. 장애가 있고 없는 것은 섬의 위치나 지형이 다를 뿐, 그 자체로 고립되어야 하는 성질이 아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소속감이나 연대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왔다.

수식어의 자리

자기소개를 하거나 타인에게 소개를 받을 때, ‘장애인 유시아’가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여지없이 이름 앞에 장애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심지어 당사자가 없는

I often think that living with a disability is much like living on a remote island. Even when the island is connected to the outside world and receives the resources and support it needs, there remains a certain distance that is difficult to bridge between its inhabitants and those on the mainland. When non-disabled people interact with me, they often do so differently than they would with another non-disabled person. They may ask, in a cautious and concerned tone, whether there is anything I find difficult. They may express sympathy despite having only just met me. Or they may offer encouragement so exuberant that it feels burdensome: “But you’re doing so well!” Whatever the intention, I am left with the feeling that I have been set apart—not regarded simply as another person in conversation, but classified instead as *a disabled person*, belonging to a separate island. An island slightly removed from the mainland. An island presumed to require special care. An island that people from the mainland visit from time to time, crossing the water by boat to reach it.

But on reflection, every person is an island. We spend our lives building bridges between those islands. Some are solid structures of stone, built to endure. Others are fragile rope bridges, swaying with each step. Still others resemble stepping stones scattered across the water, requiring care and effort to cross. Having a disability or not simply means that our islands occupy different locations and are shaped by different terrains. It is not, in itself, a condition that condemns anyone to isolation. Yet for a long time, society has made disability itself a source of separation. It has fostered feelings of isolation and made it

자리에서도 “내 친구 중에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로 시작하는 말은, 인간의 복합성을 뭉뚱그리고 ‘장애’라는 요소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느낌이 들게 만든다. 물론 장애는 있다. 그것은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우스 이디엄 음악을 좋아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른 채 날밤을 새우는 것이 특기이고,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 홀로 해외까지 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각양각색인 특징들이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다.

어째서 유독 장애만이 이름의 바로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까. 장애는 수많은 특징 중 하나다. 대학생, 오른손잡이, 강아지 중 말티즈를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과 같은 층위에서. 다만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고, 세상이 규정한 ‘평범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조율이 필요할 뿐이다. 장애는 장애 당사자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를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절대적 요소가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 중에도 시력이 좋지 않은 이들은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고, 야맹증이 심한 사람은 밤 운전이 불가능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앞에 오지 않는 것처럼, 장애 역시 한 인간의 바탕이 아닌 겉 중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모두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돌봄의 주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들었다. “너는 잠도 휠체어에서 자? 수영도

difficult for many disabled people to experience a genuine sense of belonging, connection, and solidarity.

The Place of Modifiers

When introducing myself—or being introduced by others—I often find myself becoming *disabled Ryu Sia*. Almost without fail, the modifier disabled is attached to my name. Even in conversations where I am not present, remarks that begin with, “I have a friend who uses a wheelchair...” can have a similar effect. They compress the complexity of a human being into a single characteristic, making it feel as though disability alone stands in for everything that person is. True, I am disabled. That is a fact, and it is not something I deny. But I am also someone who loves house and EDM music. I am the kind of person who can lose track of time and talk with friends until dawn. I am someone who will travel overseas alone to see a favorite idol perform. These, too, are part of who I am. Each person is composed of countless traits, interests, habits, passions, and relationships. I am no different. Disability is one aspect of my identity, but it is only one among many qualities that make me who I am. Together, these diverse and overlapping facets form the person called Ryu Sia.

Why is it that disability, of all things, must take the very first spot in a person’s name? Disability is just one of many characteristics. It exists on the same level as being a college student, being right-handed, or preferring Maltese dogs. It is simply more visible on the surface, look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world’s

휠체어 타고 해?” 이 질문에 “당연히 침대에서 자고,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해. 휠체어를 탄다고 모든 일을 휠체어에서 하지는 않아.”라고 대답했었다. 당시의 내겐 무척 황당한 경험이었지만, 조금 더 자라고 난 뒤엔 침대형, 수중 휠체어의 존재와 ‘당연하게’ 휠체어에서 내려 하는 거라고 생각한 일들마저 제한적인 거동 범위로 인해 휠체어에서 해야 하는 이들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렇듯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개인마다 그 정도와 특성은 제각각이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몸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 내겐 필요하지 않았던 침대형, 수중 휠체어를 꼭 써야만 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돌봄과 지원에 관한 논의에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는 자주 묻히고 만다.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의 발화자가 비장애인일 때, 그것은 아무리 친절하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당사자에겐 일종의 규정이 된다. 돌봄의 주어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권리가 있다.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연대의 시발점이다. 이는 장애인 돌봄에 대한 논의에서 비장애인을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연대는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라고 먼저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질문 하나만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그리고 비장애인과 관계의 결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definition of normal, and requires a bit more social accommodation. While a disability can describe a person with a disability, it cannot be the sole factor that defines or judges them. For example, among non-disabled people, those with poor eyesight wear glasses or contact lenses; those with severe night blindness cannot drive at night; and those with a fear of heights cannot work at high elevations. Just as these traits do not come first when introducing a person, I dream of a society where disability is recognized not as the foundation of a human being, but as one of many facets. And that dream is not merely an ideal; it is also a practical foundation upon which everyone can live more fully as human beings.

The Subject of Care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 friend once asked me a question: “Do you sleep in your wheelchair, too? Do you go swimming in it?” I remember replying, “Of course I sleep in a bed, and I get out of my wheelchair to swim. Just because I use a wheelchair does not mean I do everything in it.” At the time, the question seemed absurd. I could not understand how anyone could think such a thing. But as I grew older, my perspective changed. I learned that wheelchair users’ experiences are far more diverse than I had imagined. There are reclining wheelchairs designed for extended use, as well as aquatic wheelchairs that make access to the water possible. I also came to realize that some people, because of more limited mobility, must do many things from their wheelchairs that I had

선의와 자립 사이

일상에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그 선의에는 매번 감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기꺼이 받으려 한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많은데, 가끔은 능력과 잠재력이 신체 뒤에 가려져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중하게 도움을 거절했음에도 “내 선의를 무시하냐”라며 화를 내기도 한다. 그 순간, 선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의를 베푸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 많은 미디어 매체가 장애인을 묘사할 때 ‘장애를 딛고’, ‘장애에도 불구하고’와 같은 극복 서사를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삶 안에서 숨을 쉬고 물을 마시는 일만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극복’이라는 단어는 장애를 결핍과 불완전함의 대명사로 여기게 만든다.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결핍으로 규정하고, 그 서사에서 벗어난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읽히게 만든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자연스레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가 규정하는 수준에 도달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정이 불완전할지라도,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꿈꾸고 성취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자립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 위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성공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과 배려의 종류와 정도를 스스로 알아가게 된다.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그 과정을 미리 규정하거나 대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적절한 지원을 스스로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돌봄은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once assumed everyone would naturally do outside of them.

As such, even among people with the same type of disability, the severity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vary from person to person. Furthermore, the nature of the support required differs entirely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grew up, how their body functions, and what they value. Just as there are people who must use bed-type or aquatic wheelchairs—even though I personally did not need them. Therefore, the person who knows best what kind of support a person with a disability needs is the person themselves.

In discussions about disability care and support, the voices of disabled people are often left unheard. When a non-disabled person says,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this,” that statement—no matter how kind or well-intentioned—becomes a form of definition imposed on the other. The subject of care should be the person receiving it. They have the capacity and the right to speak about what they actually need. Listening to their voices is where genuine solidarity begins for non-disabled people. This is not a call to exclude non-disabled people from these conversations. True solidarity doesn’t work by deciding what someone needs in advance. It starts with a simple question: “What do you need?” A single question can transform everything—the quality of disabled people’s lives, and the very tex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Between Good Intentions and Independence

I often encounter people who try to help me in my daily life. I’m always grateful for their goodwill, and I’m happy to accept their help when I need it. However,

필요한 순간에 청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파트너를 구하라는 말

여성 장애인으로서 유독 자주 특정한 조언을 듣는다. “미래를 위해서 든든한 남자 친구를 만들어두는 게 좋지 않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돌봐줄 거야, 배우자가 있어야지.” 이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의 노후와 독립적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따라왔고, 오랫동안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언어화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불편함은, 미래의 ‘운택한 삶’이 특정한 관계—법적 배우자, 혹은 이성 파트너—를 맺는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왔다. 좋은 인연을 만나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이 많지만, 여러 계기로 인해 비혼, 비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다. 혹자는 “아직 네가 적절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삶의 방향과 관계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그런데 이 선택은 종종 ‘미래를 포기한 것’처럼 읽힌다. 이성 파트너와 자녀의 부재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할 것이며, 굳이 삶의 핵심 관계의 공백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한국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 문화권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과 이에 수반하는 리스크는 여성의 몫이 더 크다.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책임져야 하는

there are clearly many things I can do on my own, and sometimes I feel as though my abilities and potential are overshadowed by my physical limitations and go unrecognized. Some people even get angry, saying, “Are you ignoring my good intentions?” even after I’ve politely declined their help. In that moment, it becomes clear that their goodwill wasn’t for my sake, but for their own.

Many media outlets frequently use narratives of overcoming—such as *overcoming disability* or *despite disability*—when depic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However, disability is not something to be overcome. It is simply something we live with, as natural as breathing or drinking water. Yet the word *overcome* leads us to view disability as synonymous with deficiency and imperfection. It defines disability as a deficiency that must be overcome, and makes lives that deviate from that narrative seem as though they are not yet complete. As I experienced these things, a question naturally came to mind: Must the independe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ach a level defined by society in order to be recognized? No, it does not.

Even if the process is imperfect, the very act of planning, executing, dreaming, and striving to achieve something on one’s own is what matters most. Independence is not a finished state but a direction. And through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and success along that path, individuals come to understand for themselves the type and extent of help and care they need. Society’s role is not to predetermine that process or draw conclusions on their behalf, but to establish a system that enables individuals to request appropriate support for themselves.

것들이 늘어나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이미 자명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이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없는 노후는 철저한 독신의 형태가 될까? 내게는 또래의 사촌들이 있고, 오랫동안 함께 한 친구들이 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물질적 지원과 감정적 연대를 제공하고,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신뢰를 형성한 관계들. 이 관계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생활동반자, 새로운 연립의 언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생활동반자법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하며 서로 돌보는 두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혼인절차를 밟지 않은 이성 커플, 동성 커플, 친밀한 우정 관계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도입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 지지의 이유는 단순히 ‘다양성’이나 ‘포용’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에만 있지 않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님마저 계시지 않는 미래에 가깝게 의지하고, 때로는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재의 법적 틀 안에서는 배우자나 활동보조인과 같이 매우 한정적인 관계에 그친다.

배우자는 낭만적 관계를, 활동보조인은 서비스 계약을 전제로 한다. 둘 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밀한 관계와는 다른 형태이다. 원하지 않는데도 현실적인

Care, in this sense, should not be imposed from above but should be something that those in need can request at the moment they need it.

The Remark About Finding a Partner For Your Future

As a woman with a disability, I hear certain pieces of advice all too often.

“Wouldn’t it be good to find a reliable boyfriend for the future?” “Who’s going to take care of you after your parents pass away? You need a spouse.” I know these comments aren’t meant maliciously. They also reflect a genuine concern about the lack of practical social suppor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regarding their later years and independent living. However, every time I heard these remarks, I felt a strange sense of discomfort, and for a long time, I found it difficult to put my finger on exactly what that discomfort was.

Now I can say it. That discomfort stemmed from the assumption that a comfortable life in the future could only be guaranteed if a specific relationship—a legal spouse or an opposite-sex partner—was established. While many women with disabilities have found good partners and are living their lives, various circumstances have led them to decide against marriage and childbirth. Some might say, “It’s just because you haven’t met the right person yet.” But this is a choice rooted in one’s beliefs and valu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life and relationships. Yet this choice is often interpreted as “giving up on the future.” It implies that the absence of a romantic partner and children will lead to an unhappy old age, and that one has chosen to create a void in the core

까닭으로 만든 관계에는 쉬이 마음을 주고 유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보단
결이 맞는 이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각자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삶을 상상한다. 이것은 낭만적 사랑이 아니어도 되고, 법적 혼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현재의 법은 이 관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응급 상황에서 동반
입원 동의를 할 수 없고, 함께 마련한 주거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으며, 상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것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은
단순한 제도의 도입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관계의 스펙트럼만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지 않을까.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다.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받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 법과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가칭
「생활동반자법」과 같이 혼인·혈연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효력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relationships of life.

In most countries and cultures, not just in Korea, women bear a greater
share of the burden associated with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long with the risks that come with them. It's hard enough to take care of myself,
so having to shoulder even more responsibilities is undeniably a massive
burden. Despite positive aspects, it's not an ideal I'd want to pursue at the cost of
accepting such an obvious burden. If that's the case, will a retirement without a
family mean living a life of complete solitude? I have cousins my age and friends
I've known for a long time. We cheer each other on, provide material support and
emotional solidarity, and have formed relationships built on trust that cannot be
easily broken. I find it strange and unreasonable that these relationships hold no
legal status.

Life Partnership: A New Language of Interdependent Living
The Life Partnership Act, which has long been discussed in South Korea, i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would recognize as family two adults who live together
and care for one another, even if they are not related by blood, and grant them
legal protection and rights. It seeks to enable two people who share their lives—
such as unmarried heterosexual couples, same-sex couples, or close friends—to
assume responsibility for one another. I strongly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is
legislation. My support is not based solely on abstract values such as *diversity*
or *inclusion*. It is also grounded in very concrete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의 필요성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관계를
대변한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두 여성, 노후를 함께 보내기로
한 대학 동창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공동체. 이
관계들은 지금도 현존하며 작동한다. 다만 법의 언어 안에 들어오지 못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보호받지 못한다. 피를 나눈 가족이나 법적으로 묶인 배우자만이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받는’ 현재의 관습은 무척 구시대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서로에 대한
돌봄과 지지는 애정과 신뢰에서 나오고, 애정과 신뢰는 관계의 형식보다 깊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사회가 이 사실을 제도적으로도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우리의 관계는 쌍방향

초등학교 입학부터 늘 ‘완전통합교육’(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을 받아왔다. 주변엔 비장애인 친구가 훨씬 많고 이들과 부딪치며 상생하는 관계란
무엇인지 탐구해 왔다.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공존 방식은 일방적 돌봄 제공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도움받은 만큼,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줄 수 있다. 여러
친구가 내게 한 말이 있다. “너와 친해진 후부터 건물에 경사로가 있는지, 지하철 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어.” 나 또한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쉽사리 도움을 주거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앞서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당사자의 목소리 없인 자칫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In a future when one's parents are no longer present, who might become the
person with whom one shares the closest bond, relies upon most deeply, and
exchanges care and support in solidarity?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such relationships are largely limited to narrowly defined categories, such as a
spouse or a personal assistance provider.

A spouse is based on a romantic relationship, while a personal assistance
provider is based on a service contract. Both are different from the kind of
intimate relationship formed through long-term companionship. I believe it is
difficult to easily open one's heart and form a bond in a relationship created
out of practical necessity rather than desire. Instead, I envision a life lived in
the same space with someone who is a good match, sharing each other's daily
lives and fulfilling each other's needs. This does not have to be romantic love,
nor does it have to be a legal marriage. Yet current laws treat this relationship
as if it were nothing. In an emergency, one cannot give consent for the other's
hospitalization;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for the home they have built together;
and if the partner suddenly passes away, the surviving partner has no rights to
the possessions left behind. Therefore, the Domestic Partnership Act holds value
beyond the mer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n a society that is changing
rapidly day by day, isn't it strange that the spectrum of family relationships is
the only thing that remains unchanged?

In 202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ubmit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Diverse Family Structures* to

파악하지 못한 채 문제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평생 비장애인들과 쌓아온 관계는 쌍방향이다. 함께 시험공부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각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조금씩 채워주는 방식. 이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상호적인 연립이다.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비장애인이 ‘희생’ 한다는 것은 철저한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일방적인 돌봄과 도움을 받는 장애인이 존재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부담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면, 짐짝과 같은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께 섬이 된다는 것

처음의 비유로 돌아가자. 고립된 섬이 아니다. 연립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어울려 섬, 또는 그렇게 서서 하나의 형태로 만듦’이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은 섬이 모여 제각각의 형태를 이루는 것. 그사이엔 어떠한 위계질서도 없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섬 사이 다리를 놓고 왕래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장애-비장애의 연립이란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세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이룬 섬들 사이에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누구도 혼자 다리를 놓거나 철거할 수 없고, 상대 섬의 허락 없이 무단침입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 의무적이거나 시혜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왕래가 되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너오는 것이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new and diverse family forms are emerging and their proportion is increasing daily, current laws and systems are still based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family. As a result, the diverse living communities that actually exist are not receiving substantive protection and are, in fac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Furthermore, considering the trend in many countries toward legally protecting various types of living communities, the Commission deemed that domestic laws and systems require improvement. Accordingly,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is a need to enact legislation—such as the proposed *Life Partnership Act*—to regulat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legal effect, and registration of new forms of partnership relationships arising from grounds other than marriage or blood ties.

The need for revision put forward by the Discrimination Remedy Committ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peaks for the diverse relationships of those living in our time. Two women raising a child together in the same neighborhood; college friends who have chosen to grow old together; a community that, though unrecognized by law, regards one another as family. These relationships exist and function even now. Yet because these relationships are never admitted into the language of the law, they go unprotected at the

부담이 아닌 선택이 될 때, 장애라는 수식어가 여러 특징 사이 자연스럽게 놓일 때, 당사자의 목소리가 문제해결의 근간이 될 때,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가 실재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우리의 관계에 작은 다리 하나를 더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moment protection is most needed. The present convention—in which only blood relatives or a legally bound spouse are *recognized* as one’s life partner—cannot but feel deeply outdated. Care and support for one another arise from affection and trust, and affection and trust come not from the form of a relationship but from its depth. We hope for the day when our society comes to recognize this within its institutions as well.

Our Relationships Are Interconnected

Ever since I started elementary school, I have always been part of a *Full Inclusion Program* (in which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ceive all of their education within the regular classroom). Most of the friends around me are non-disabled, and through my interactions with them I have explored what it means to buil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Interdependent living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s not a matter of one-sided car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give something back to non-disabled people, just as they receive help from them. Many of my friends have told me so. “Ever since we became friends, I’ve started checking whether buildings have ramps and subway stations have elevators.” Spending time with people without disabilities, I’ve also realized that more people than I expected are unaware of the inconvenienc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offer help or empathize with those challenges. This ties in with the point made earlier about the ne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thout hearing from those directly affected,



there is a risk of attempting to find solutions without properly grasping the core of the problem.

The relationships I have built with non-disabled people over my whole life, then, go both ways. Studying for exams together, sharing hobbies, lending an ear to each other's worries, each of us gradually filling in what the other finds hard to manage or simply lacks. This is not a structure in which disabled people depend one-sidedly on non-disabled people, but a mutual, interdependent living in which we lean on one another. The notion that non-disabled people *sacrifice* themselves to *care* for disabled people is a thoroughly non-disabled-centered way of thinking. Just as there are disabled people who only receive one-sided care and help, there are just as many who do not. Above all, no human being lives in order to become someone's burden, and no one deserves to be treated like dead weight.

What It Means to Be an Island Together

Let's return to the original metaphor. It is not an isolated island.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interdependent living is *living together as a group, or coming together to form a single entity*. It refers to countless islands made up of individuals coming together to form their own distinct shapes. There is no hierarchy among them. We each build bridges between these islands in our own way, moving back and forth as we go about our lives. The interdependent living of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en, is not about absorbing disabled people

into the world of the non-disabled. It is about building proper bridges between the islands that each of us has formed. No one can build or tear down a bridge alone, nor trespass onto another's island without its permission. And I hope that crossing another's bridge can become a natural coming and going—neither an obligation nor an act of charity. When crossing over to one another becomes a choice rather than a burden; when disabled settles in naturally among a person's many other traits; when the voices of those directly concerned become the foundation for solving the problems that affect them; when laws and institutions that support relationships of every kind *actually* exist—only then will we be able to say that we truly coexist. I hope this piece can be an occasion to lay one more small bridge across our relationships.



작가 및 작품
Artists and Works

66	김진우
76	등지
88	라움콘
98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김인규 어쩌다 보니
120	선사랑드로잉회 문승현 우리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에 부치는 짧은 글
134	이정현
66	Kim Jinoo
76	Dungji
88	laumkon
98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Kim Ingyu As It Happend
120	Sunsarang Drawing Group Moon Seunghyun Croquis of Our Bodies - A short Text for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134	Lee jeonghyeon

김진우

Kim Jinoo

1997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기차를 무척 좋아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혼자 기차 여행을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2011년부터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 기차 여행은 특별한 도전이나 극복의 서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깝다. 진우는 키오스크에서 승차권을 구매하고, 점심으로 국밥을 먹고, 지연된 열차를 기다린다. KTX와 새마을호,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내리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상황을 전하기도 한다. 이 장면들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여행 속에서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들이다. 우리는 진우의 표정과 말에 귀 기울이며,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순수한 태도와 이동의 과정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의 여행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결말보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각과 즐거움에 더 가까이 머문다.

진우의 여행은 장애인의 자립을 개인의 성취나 독립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을 잠시 비껴선다. 진우에게 삶은 혼자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고, 관계 맺으며 이어가는 과정이다. 그의 반복되는 이동은 한 사람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장면이자, 우리에게 스스로 즐기고 선택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묻는다.

Kim Jinoo was born in 1997 in Seocheon, Chungcheongnam-do. He has an intellectual and neurological disability. Since childhood, he has loved trains, and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began traveling by train independently. He also enjoys drawing and socializing with others, so he joined an art club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2011, where he continues to be active today.

For Jinoo, train travel is neither a special challenge nor a narrative of overcoming obstacles. Rather, it is a way of naturally engaging with the world. He buys train tickets from a kiosk, eats rice soup for lunch, and waits for delayed trains. Boarding and transferring between the KTX, Saemaeul Train, and West Sea Golden Train, he sometimes talks to himself, sings songs he enjoys, and calls his father to share what is happening along the way. These scenes are not extraordinary events but everyday moments that unfold throughout the journey. As we listen to Jinoo's words and observe his expressions, we encounter his genuine enjoyment of travel and his deep immersion in the act of moving itself. His journey remains closer to the sensations and pleasures that arise through the process of moving from place to place than to the conclusion of arriving some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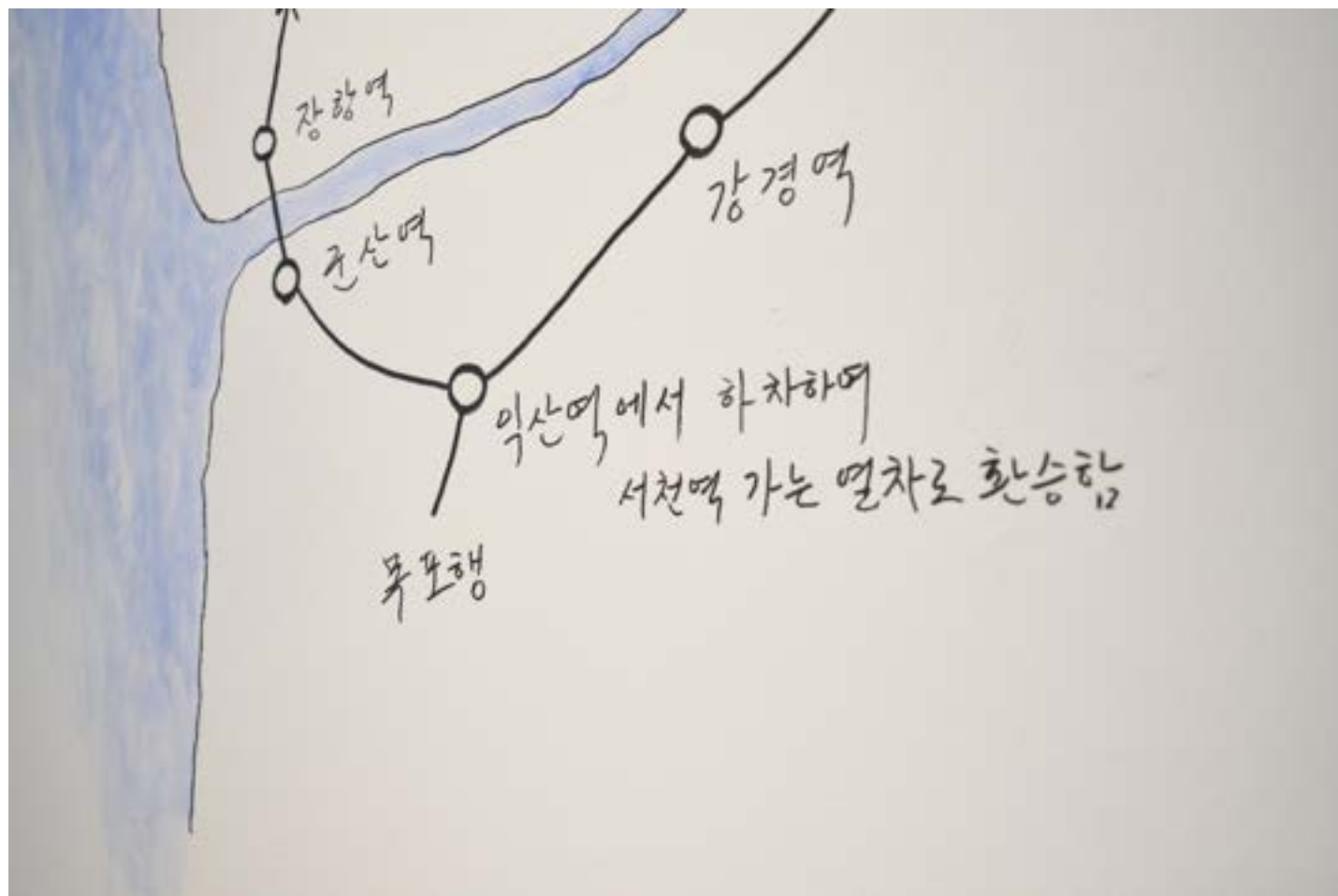
His travel gently shifts away from the familiar perspective that views the independence of disabled people solely as a personal achievement or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For Jinoo, life is not something completed alone, but an ongoing process of making choices, moving through the world, and building relationships. His repeated journeys reveal the ways in which one person connects with the world on his own terms, while inviting us to reconsider what it means to live a life shaped by choice, enjoyment, and self-determination.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2026, 싱글채널 비디오, 7분 23초.
영상 프로덕션:소농지.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Train travel with Jinoo
2026, Single-channel video,
7 min 23 sec.
Film Production: sonongji.
Supported by Modu Art Space.





〈진우와 함께하는 기차여행
_롤링페이퍼기〉
2024-2025, 혼합매체,
44 × 60 × 16 cm.

Train travel with Jinoo
_Rolling Paper Machine
2024-2025, Mixed media,
44 × 60 × 1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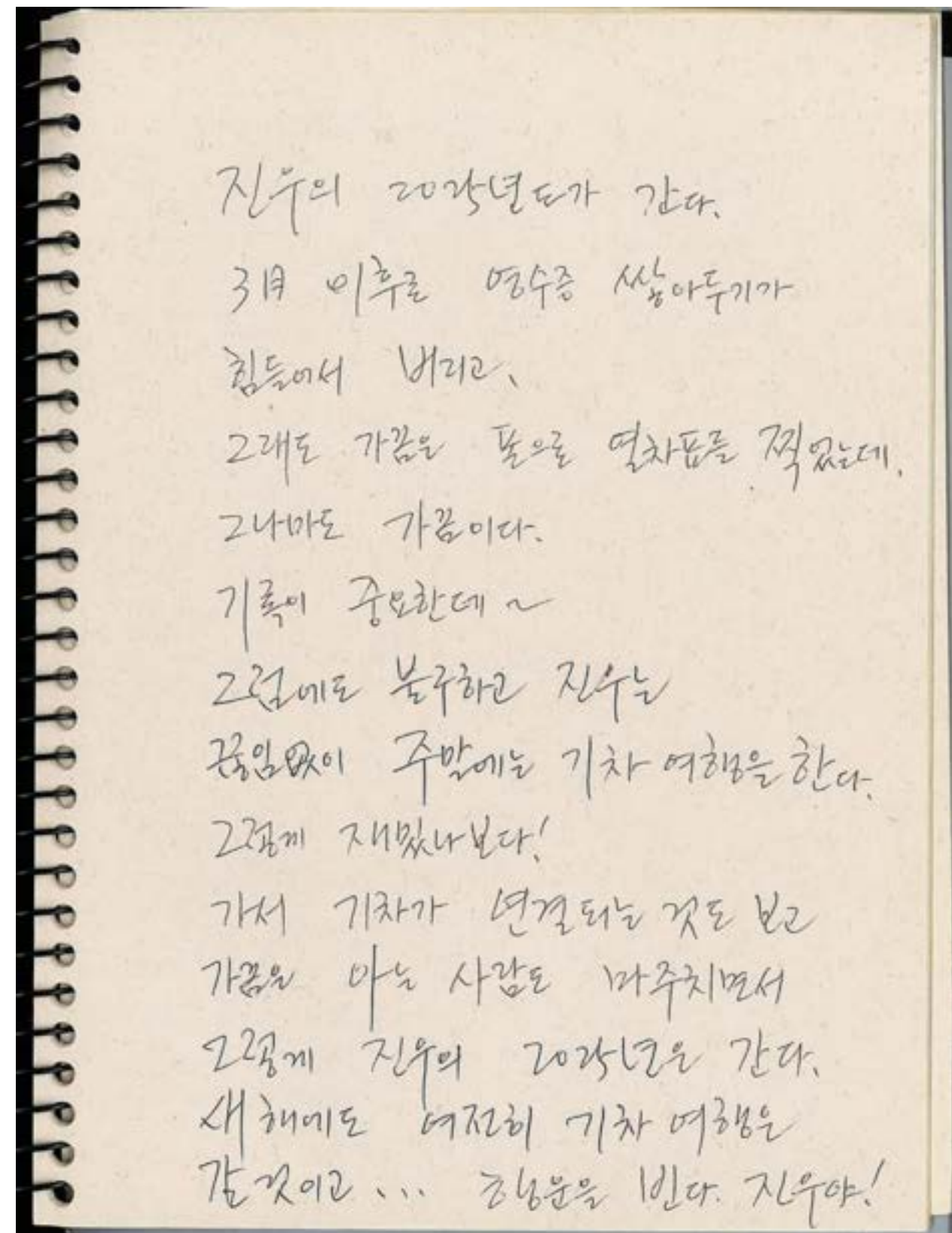


〈진우의 여행노트〉

2019-2026, 아카이브 노트,
18.2 × 25.7 cm.

Jinoo's Travel Note

2019-2026, Archival notebooks,
18.2 × 25.7 cm.



둥지 Dungji

2024년 결성된 둥지(김보라, 송하정, 오다솔)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포용적 예술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등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감각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둥지에게 관계란 완성된 구조가 아니라, 예기치 않은 만남과 작은 접촉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가깝다.

〈둥지의 풍경〉은 오늘의 날씨, 마음, 태도, 말, 몸과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 관계를 감각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이 작업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고 대화하며 형성되는 관계의 성질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둥지가 준비한 상자 안에는 실, 천, 종이, 씨앗, 밀랍 덩어리처럼 흠뜨리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담겨 있다. 각각의 사물은 스스로 완결된 의미를 갖기보다 다른 것들과 만나고 부딪히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는 존재들이다. 참여자는 하나의 상자를 골라 터를 잡고, 재료를 꺼내 만져보거나 이어 붙이고, 두드리고 비비며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낯선 것들을 만지고, 보듬고, 미세한 소곤거림에 귀 기울이는 동안, 참여자들은 무언가를 돌보고 신경 쓰는 자신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Founded in 2024, Dungji (Kim Bora, Song Hajeong, and Oh Dasom) has presented participatory programs for socially marginalized communities, including children, older adult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igrants. Drawing on their experience in inclusive art practices, the collectiv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 sensory community in which diverse beings connect and form relationships through media such as installation, sound, and performance. For Dungji, relationships are not fixed structures but processes that gradually emerge through unexpected encounters and small moments of contact.

Dungji's Scenery is a participatory workshop that invites participants to sensorially encounter the various relationships that blossom through today's weather, emotions, attitudes, words, bodies, and thoughts. The work metaphorically reflects the nature of relationships formed when different beings meet and engage in conversation. The boxes prepared by Dungji contain a variety of materials that can be scattered and connected, including thread, fabric, paper, seeds, and lumps of beeswax. Rather than possessing complete meanings on their own, these objects generate new meanings through encounters and interactions with one another. Participants are invited to choose a box and settle into a place of their own. They may take out the materials, touch them, connect them, or create sounds by tapping and rubbing them. As they touch unfamiliar objects, hold them with care, and listen closely to their subtle whispers, participants naturally come to recognize their own ways of caring for and attending to others.

김보라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다양한 단체전과 퍼포먼스 페스티벌에 작가 및 퍼포머로서 참여하였다. *Théâtre du Cristal* 발달장애인/신경다양성 전문배우극단에서 무대미술 작가로 일했고, 2023년에는 벨기에의 *Newpolyphonies* 소리와 빛 중심의 공연단에서 시각작가 및 퍼포머로서 다양한 퍼포먼스 페스티벌과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4년부터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다솜 작가와 단체 '등지'를 결성하여 워크숍 중심의 포용적 예술 전시-공연을 실천하고 있다.

오다솜

순수미술을 전공했으며 오브제, 설치 등을 주 매체로 작업하였다. 내향적인 개인작업과는 다르게 2024년부터 단체 '등지'로써 나와 같은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INTER+VIEW=», SeMA 창고, 대한민국 서울(2021), *Memory Card: The Perk of Being Able to Remember*, apexart, 파리, 프랑스(2022)와 «괜찮아 세로토닌이야», 복합문화공간111CM, 수원(2025) 등이 있다.

송하정

전시, 광고, 애니메이션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한다. 자연물과 이야기에 담긴 요소를 녹여내어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신승우 작가 개인전 «나무의 시간»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여 식물의 전기 데이터를 활용한 음악을 선보였으며, 세계유산축전 특별기획전 «숨쉬는 돌, 사계의 걸»에서는 돌의 소리를 채집하고 고인돌과 그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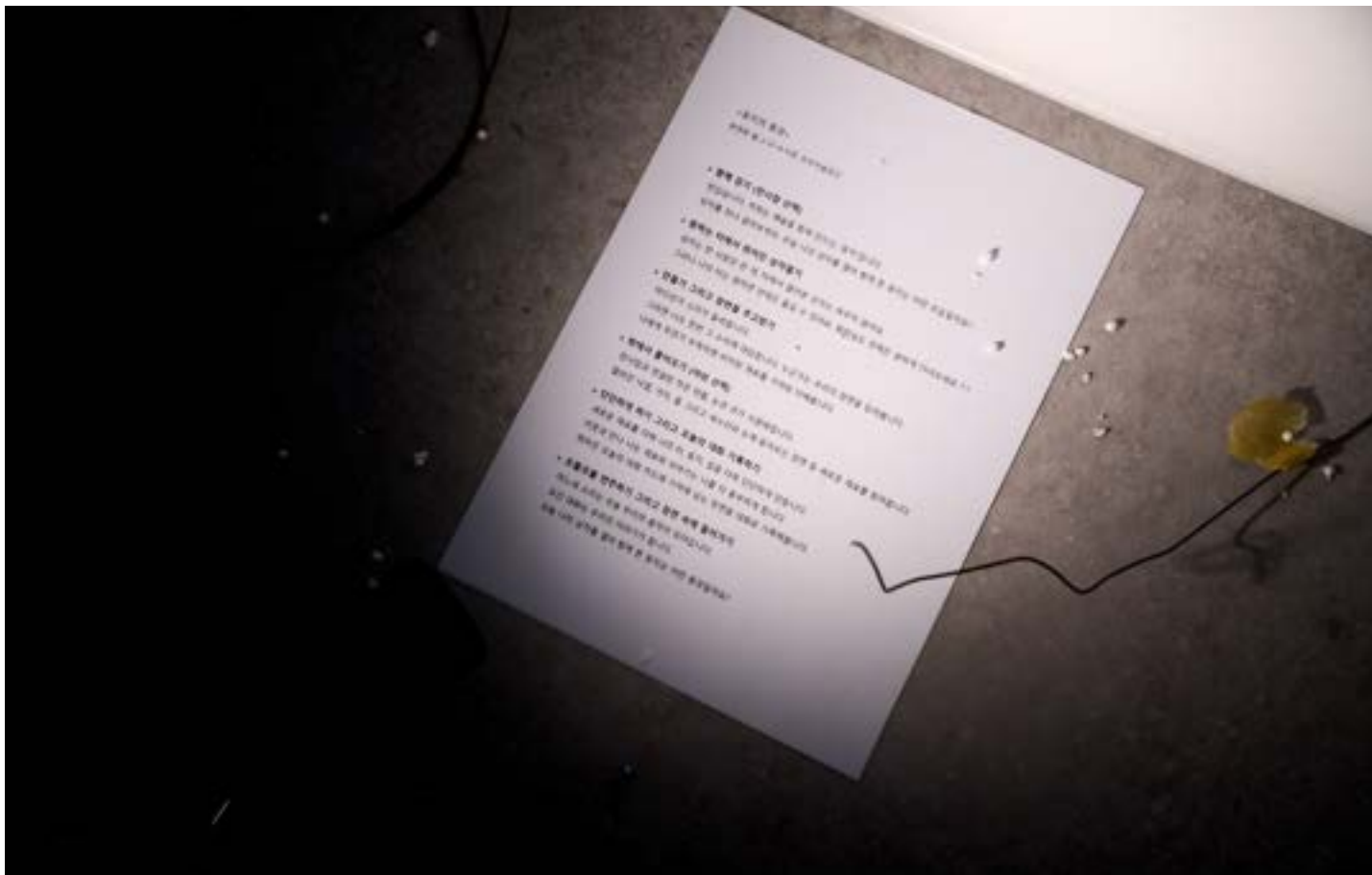
〈둥지의 풍경〉

2026, 상자, 실, 종이, 씨앗, 차망, 철사,
밀랍점토, 스펀지, 주워 온 자연물, 스피커,
가변 크기.

The Dungji Scenery

2026, Boxes, threads,
paper, seeds, tea strainer, wire,
beeswax clay, sponge, found
natural objects, speakers,
variable installation.





〈동지의 풍경〉스코어

• 함께 걷기 (전시장 산책)

반갑습니다. 저희는 예술을 함께 만드는 ‘동지’입니다.
상자를 하나 골라보세요.
오늘 나의 상자를 열어 함께 튼 동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 원하는 터에서 쥐어진 상자열기

상자는 한 사람당 한 개, 터에서 열어본 상자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터는 원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화장실도 언제든지 편하게 다녀오세요^^

• 만들기 그리고 장면을 주고받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나도 한번 그 소리에 대답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장면을 담아봅니다.
나에게 무언가 부족하면 비치된 재료를 가져와 더해봅니다.

• 밖에서 물어오기 (야외 산책)

전시장과 연결된 작은 뒤뜰, 눈과 귀가 시원해집니다.
떨어진 낙엽, 가지, 돌 그리고 새소리와 눈에 들어오는 장면 등
새로운 재료를 찾아옵니다.

• 단단하게 하기 그리고 오늘의 대화 기록하기

새로운 재료를 더해 나의 터, 동지, 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웃과 만나 나는 재료와 이야기는 나를 더 풍부하게 합니다.
쥐어진 오늘의 대화 카드에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대화로 기록해봅니다.

• 조물조물 연주하기 그리고 장면 속에 들어가기

어느새 소리는 오늘 우리의 음악이 되어갑니다.
오간 대화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나의 상자를 열어 함께 튼 동지는 어떤 풍경일까요?



라움콘 laumkon

라움콘은 문화예술 기획자 Q레이터와 시각예술가 송지은이 함께하는 아티스트 듀오이다. 뇌출혈 이후 장애를 경험하며 변화한 신체와 감각을 바탕으로, 삶과 예술, 일상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한다. ‘라움콘’은 Q레이터가 베르니케 실어증을 겪는 동안 ‘양치질’을 말하려다 대신 사용하게 된, 착어이자 비언어에서 비롯되었다.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돕거나 도움을 받는 관계라기보다, 오류와 실패를 공유하며 함께 조율해 가는 경험에 더 가깝다. 라움콘은 이러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는 상호의존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취약성에 주목한다.

〈함께 조각〉은 장애와 돌봄의 관계를 탐구하는 참여형 조각 작업이다. 한쪽 팔만 사용할 수 있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등 불완전한 조건을 지닌 옷 모양의 조각은 혼자서는 온전히 기능하지 않으며, 둘 이상의 참여자가 함께 착용하고 움직일 때 비로소 작동한다. 작품은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감각, 속도에 맞춰 옷을 입고 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의존의 의미를 드러낸다.

조각을 함께 착용하는 경험은 각자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자,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협력의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몸과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장애와 돌봄이 고정된 역할이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경험임을 마주하게 된다.

* 베르니케 실어증은 좌반구 측두엽 및 후두엽 근처의 베르니케 영역 손상으로 발생하는 감각성 실어증의 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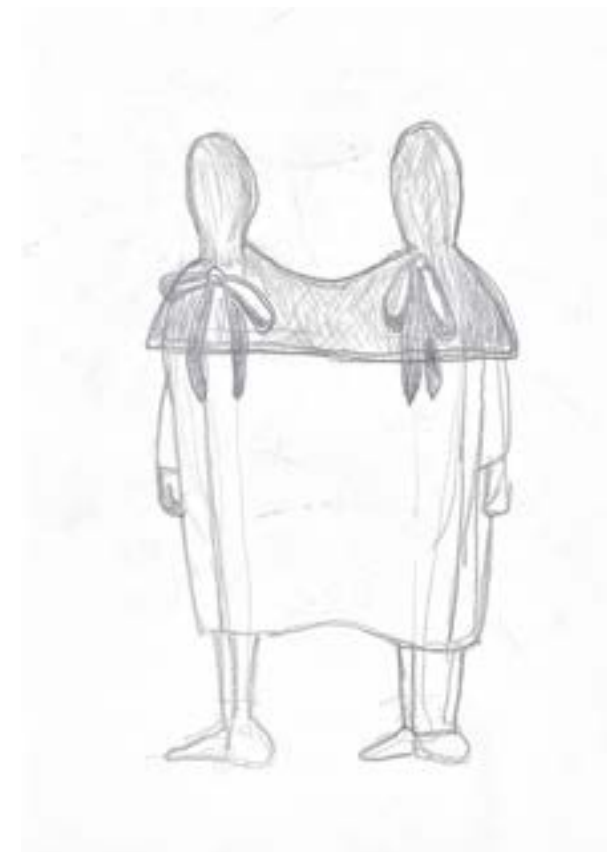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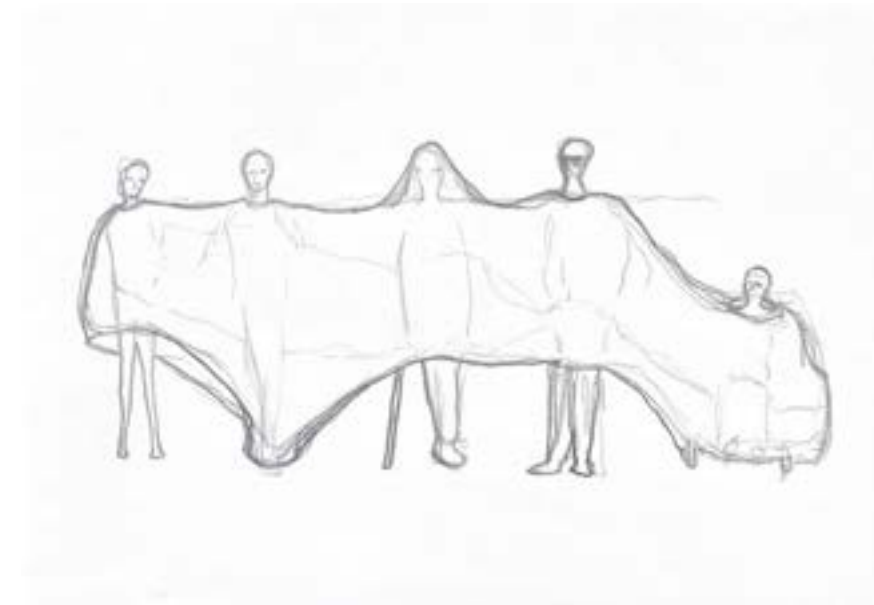
laumkon is an artist duo consisting of cultural art planner Qrator and visual artist Jee Song. Through the physical and sensory changes experienced after a cerebral hemorrhage, they reinterpret life and explore the intersection of art and everyday experience. The name *laumkon* originated from a paraphasia and nonverbal expression used by Qrator in place of the word *toothbrushing* while suffering from *Wernicke’s aphasia*.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t conditions is not simply a matter of helping or being helped, but rather an ongoing process of sharing mistakes, failures, and acts of adjustment. Rooted in these everyday experiences, *laumkon* examines interdependence as a way of relating to one another,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vulnerabilities that surface through such relationships.

Interdependent Sculpture is a participatory sculptural work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nd care. The sculptures are designed with limiting conditions—allowing movement with only one arm, obscuring vision by covering part of the face, or requiring assistance from another person to be worn. Unable to function fully on their own, the works become activated only through the involvement of two or more participants. Through this process, the work reveals the meaning of interdependence as participants negotiate different physical conditions, senses, and rhythms.

Wearing the sculptures together is both a moment in which individual vulnerabilities become visible and a process of cooperation through which participants seek balance in relation to one another. As they respond to each other’s movements and adjust their pace, participants experience care not as a fixed role or one-sided act of assistance, but as something continuously negotiated and reshaped through relationships.

* *Wernicke’s aphasia* is a type of sensory aphasia caused by damage to the Wernicke area, located near the temporal and occipital lobes of the left hemisphere of the brain.





〈함께 조각〉
2026, 싱글채널 비디오,
14분 3초.

Interdependent Sculpture
2026, Single-channel video,
14 min 3 sec.



퍼포머: 김이중, 송지희, 하영미, 허호.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Performer: Kim iijoong,
Song jeehee,
Ha youngmi, Hur ho.
Supported by Modu Art Space.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는 2011년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천지회에서 시작된 예술 공동체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창작공간과 복지기관 등을 거점으로 이동하며 15년간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22명의 발달장애인 작가와 10명의 비장애인 회원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를 넘어 일상 속의 자발적인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예술적 삶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있다.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was founded in 2011 by the Seocheon Branch of the Chungnam Paren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For the past fifteen years, it has remained active in local cultural and creative spaces and welfare facilities. This artistic community currently includes twenty-two artists who experienc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en non-disabled members who work together. Their activities aim to make artistic practice part of everyday life an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as autonomous artists, moving beyond the role of simply being users of welfare services.

서천 발달장애인 미술활동 약력

- 2011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천지회 기반 미술활동 시작
- 2015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활동 거점 이전
- 2019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반 활동
- 2023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창립 및 운영
- 2025 서천군종합복지관 기반 활동

지역 내 전시 총 16회 개최, 인천, 서울,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청 등 외부 초청 전시 참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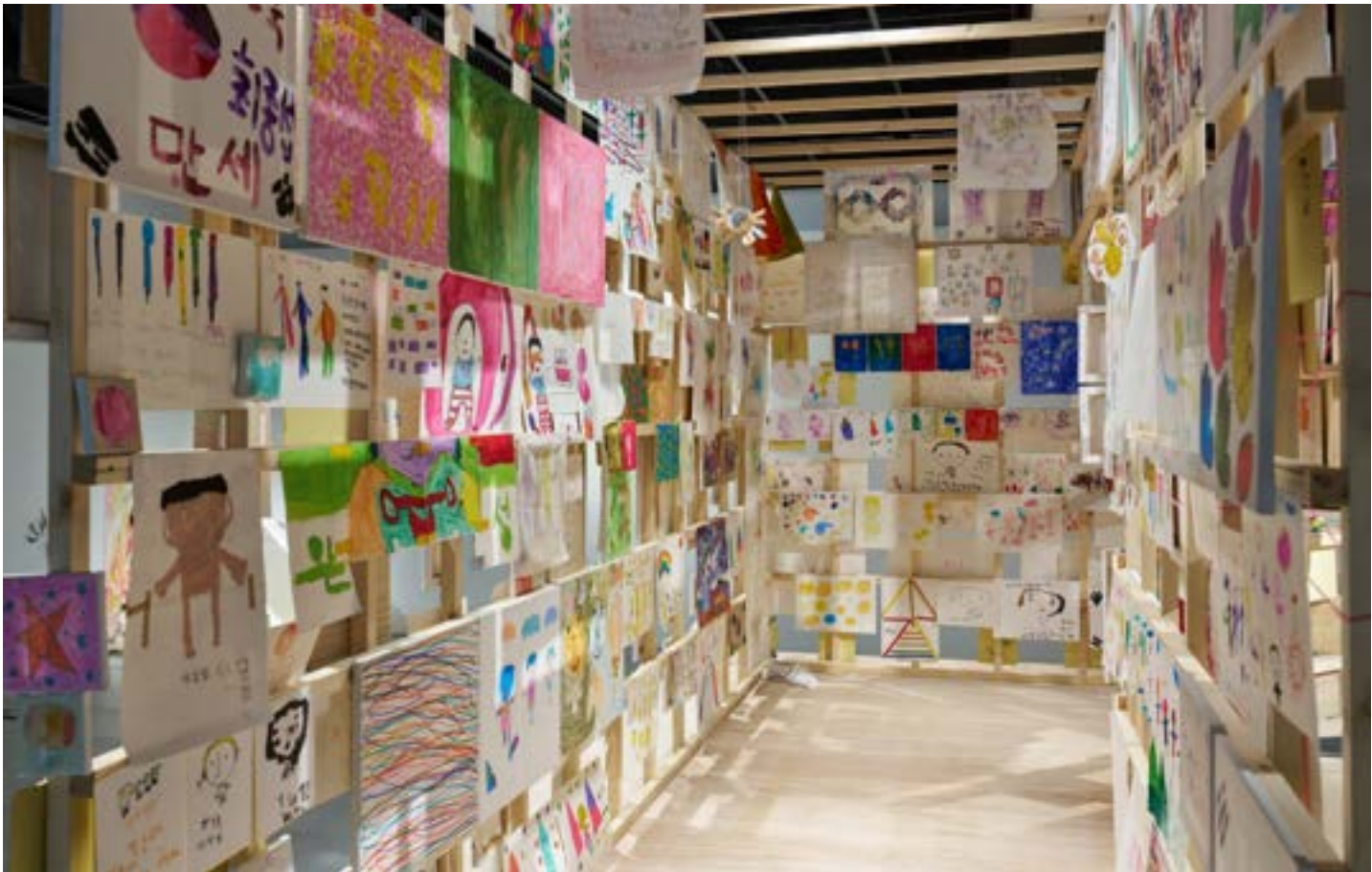


〈우리가 쌓아온 이야기〉
2022-2026, 혼합재료, 가변 크기.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The story we built
2022-2026, Mixed media,
variable installation
Supported by Modu Art Space.



작가 및 작품
Artists and Works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김인규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실험터 대표

어쩌다 보니

Kim Ingyu

Director of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As It Happened



오디오로 듣기

이번 전시는 우리 작가님들에게 정말 큰 사건이었다. 이전에도 지역을 넘어 전시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 같은 분위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작가가 작가사례비를 받아 더욱 그랬다. “우리가 작가라니! 게다가 서울!” 그런 분위기였다. 무엇보다도 ‘다함께’ 라는 상황이 모두를 편안하게 했다. 서천군의 지원도 한 몫을 했다. 작품을 설치하러 서울에 가는 데, 그리고 개막식에 참가하는 데 관용 버스를 제공하여 주었다. 함께 두 차례 서울에 오르내리는 일은 소풍과 같았다.

매개자로서, 기획자로서 나에겐 무척이나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미술관 전시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막상 전시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다. 작가님들이야 다들 좋다고 신나 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실현되게 되는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막막한 일이었다. 모든 일이 내 어깨에 놓여있으니 말이다. 전시 방향과 참여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 일정을 짜고, 작품을 정리하여 포장하고 작가 정보를 수집하고, 서울을 오르내리는 일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정말 일이 이루어졌다.

문득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1년 처음 장애인부모회에서 미술 활동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다. 다만 부모회 소속 자녀들에게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미술 교사로서 내가 그 정도의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물론 순전히 나의 아들 진우로부터 비롯된 일이기도 하였다. 진우와 진우 친구들이 모여 미술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게 진우가 서른 살이 되도록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This exhibition became a historic event for our artists. It wasn't just another show outside their hometown; it was their first true festival together. With everyone receiving artist fees, the atmosphere was electric with the realization: “We are real artists! And we’ve made it to Seoul!” This togetherness was the heart of their comfort. Thanks to Seocheon-gun’s support in providing a bus, the journeys to Seoul—for setting up the gallery and celebrating the gap—felt like a long-awaited school picnic. Those shared trips back and forth became as much a part of the art as the exhibition itself.

As both a facilitator and a curator, this was an incredibly daunting responsibility. Even after meeting with the museum’s exhibition staff and committing to the project, a persistent doubt lingered: *Could we really pull this off?* While the artists were thrilled and eager to begin, I remained cautious, feeling that only time would tell if it would truly come to fruition. The sheer weight of it all rested on my shoulders—negotiating the exhibition’s direction, coordinating schedules, cataloging and packing artworks, collecting artist bios, and managing the logistics of traveling back and forth to Seoul. Yet, as it happened, everything miraculously came together.

Suddenly, a question surfaced: How did I find my way here? In 2011, when I first began art activities at the Parents’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 never dreamed it would lead to this. My only intention was to provide a window into art education for the children of the association. As an art teacher, I felt it was a service I was meant to offer. Naturally, it all began with my son, Jinoo; I

못 했다. 그때는 어린 시절이었으니 성장하면서 점차 각자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 여겼다. 성장기에 좀 더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한두 해 활동을 지속하면서 이게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에 1회 만나 미술 활동을 하는 일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일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에 따라 더 집중하고 덜 집중하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무언가 하는 상황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이 없으면 갈 데도 없고 할 거리도 없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스스로 그런 조건을 찾아가기 어렵고 가정 또한 그것을 뒷받침 해내지 못했다.

내가 흥미롭게 느끼게 된 것은, 미술 활동이 발달장애인이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활동이라는 것이었다. 기능적으로 힘든 심한 장애라 할지라도 미술 활동은 가능했다. 미술 표현이란 몸의 움직임의 흔적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섬세하게 몸을 쓰는 일이 어렵더라도 사소한 움직임으로 만드는 흔적에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사소한 활동으로도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만큼 독특한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이 활동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미술 활동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았다. 아이들의 기능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부모들은 시큰둥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한때 활동의 결과물을 상품화하여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고자 애쓰기도 했다. 활동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하니 말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사업가가 되어야만 가능한

simply wanted a space where he and his friends could gather and create. I never imagined this would continue until Jinoo turned thirty. I had assumed that as they grew, they would naturally find their own separate paths in life. At that time, my heart was set solely on offering them the gift of quality education during their formative years.

However, as the years unfolded, I realized that this was not merely a matter of education. I began to see that meeting once a week for art held a profound value as a daily routine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ough concentration levels varied from child to child, the act of gathering regularly to create something together was, in itself, precious. Without these sessions, they had nowhere to go and nothing to do. Due to the nature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seek out such environments on their own, and their families often lacked the resources to bridge that gap.

What I found truly fascinating was that art is one of the few activities that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perform with genuine freedom. Even for those with severe functional limitations, art remained an accessible path because artistic expression can be born simply from the traces of a body's movement. I watched them find profound pleasure and joy in the marks left by even the simplest gestures, regardless of physical precision. Witnessing how such minor actions could evoke a unique aesthetic and a sense of delight, I gradually came to understand just how invaluable this practice truly is.

However, sustaining these activities was far from easy. As parents realized

일이었다. 결국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다. 그것은 부모회가 가진 폐쇄성에서도 벗어나는 과정이 되었다. 미술 활동과 그 시간에 흥미가 있고, 함께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싶었다. 부모회를 벗어나자 다른 아이들과 성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에 위탁했다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옮겨갔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는 현재까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자 행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활동공간과 비용이 제공되었다. 예술 강사도 배치되었다. 그것은 안정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참여자들은 10대에서 20대가 되었고, 새로이 10대들이 참여하고 나이가 많은 성인들도 참여하면서 폭넓은 연령대의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활동을 이어가며 다른 고민이 생겼다. 복지관을 위탁하자 미술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은 복지관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되었다. 문화복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와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었다. 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대게 3월에 개강을 하여 11월 말에는 문을 닫았다. 공간도 정해진 활동 시간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10년 가까이 활동해온 작업자들은 이미 자신의 표현을 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that their children's functional abilities were not noticeably improving, their interest began to wane. At one point, I even attempted to commercialize the artistic outcomes to generate income, hoping to create a tangible justification for the program's continuity. Yet, I soon realized that such a venture required the mindset of an entrepreneur—a role that was not mine to fill. Ultimately, I could not satisfy the parents' expectations. Nevertheless, I felt a deep conviction that I simply could not let these activities come to an end.

After that, I work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we could continue our activities by partnering with public institutions. This process also allowed us to break free from the insular nature of the parents' association. I want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nyone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who was interested in art and wanted to participate could do so. Once we moved beyond the parents' association, other children and adults began to join as well.

In the beginning, the group was based at the *Seocheon Culture and Art Creative Space* before moving to the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with which it still maintains a partnership today. Being under the wing of public institutions brought administrative support, dedicated activity spaces, and financial funding. Professional art instructors were also assigned, creating a stable environment to sustain their activities over the long term. As the years went by, the original teenage participants grew into their 20s. With new teenagers joining and older adults taking part, the initiative has now established itself as a vibrant activity spanning a wide range of age groups.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각자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작업자들에게 작가의 지위를 부여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려면 미술 활동이 안정적인 일상이 되어야 했다. 활동 공간은 작업실의 면모를 갖춰야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활동할 수 있어야 했다. 그렇지만 복지관은 그런 조건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좀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의 작업실을 제공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라는 명칭은 그때 생겼다.

처음엔 무척 망설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발달장애인의 활동은 돌봄을 전제로 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방식의 작업실은 돌봄 기능을 포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단지 작업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뿐 그 공간의 이용 주체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때쯤 나는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로스(Creative Growth)라고 하는 창작공간의 톰 디 마리아(Tom di Maria)대표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곳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용기를 얻었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동아리를 설립하게 되었다. 공간을 무상 제공하지만, 동아리 회원에게 그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부여하는 구조였다. 회원제로 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회비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회비는 연간 1만원정도로 부담이 되지 않게 했다.

그렇게 돌봄 관계가 없이 각자 자기 작업을 수행하는 미술활동 공동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활동은 정말 편안해졌으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정해진 날이면 시간 제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갔다. 비치되어 있는 재료를 알아서 사용하고 알아서 정돈했다. 알맞은 곳에 각자 자신의 작품을 보관하거나 게시할 수 있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활동지원사나 부모와 함께 함께 오지만 스스로 오는 참여자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복지관과의 파트너십은 지속할 수 있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나의 작업실에서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료비를 제공하고 강사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연 1만원의 회비로 운영이 가능했다.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미술활동 공동체이지만 그럼에도 복지관으로부터 일정한 복지를 제공받게 된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에는 서천군평생학습센터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서천군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선정되면서 우리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기를 제안해온 것이다. 내 작업실을 제공하여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장차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 였다. 아쉬운 점은 서천군평생학습센터의 교실이 우리에게 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활동은 프로그램의 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때문에 연중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실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충분한 여건은 아니었지만, 기본 방향을 합의하고 서천군평생교육센터 강의실로 작업공간을 이전하였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었다. 베리어프리한 공간이었고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사용하는데

However, as the journey continued, new dilemmas began to emerge. Once the program was integrated into the welfare center, the participating artists were repositioned as mere *clients* or *users* of the institution’s services. It turned into a rigid dynamic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passive recipients under the umbrella of cultural welfare. Consequently,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became inevitably restricted. The program ran strictly on an academic calendar—gap in March and closing by late November. Even the physical space was temporarily granted, accessible only during strictly designated hours.

The practitioners, who had been dedicated to their craft for nearly a decade, were already projecting their own distinct expressions; art had integrated into their daily lives. They were no longer mere participants utilizing a service. Instead, they were pursuing individual joy while weaving together a genuine collective. I began to realize that these creators deserved the definitive status of *artists*. To achieve this, their artistic engagement needed to become a stable, uninterrupted rhythm of life. The creative environment had to evolve into a fully equipped studio, accessible whenever inspiration struck, and operating year-round without seasonal breaks. However, the welfare center lacked the capacity to meet these essential needs. Prompted by the urgency to secure a more autonomous environment, I ultimately decided to offer my own private studio. It was at this pivotal moment that the name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was born.

Initially, I experienced great hesitation. Up to that point, initiatives involv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d been predicated on the concept of caregiving. However, a workspace operating under this new philosophy could not substitute as a care facility. Although I offered the studio at no cost, the autonomy of the space had to reside entirely with the individuals themselves.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I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om di Maria, the director of *Creative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confirmed that their studio was managed through precisely this approach. Finding validation in their framework, I gathered the courage to implement this method and established the club as a means to realize it. Although the physical space was offered at no cost, the structural framework endowed the club members with fu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its utilization. Operating on a registered membership basis, the group elected internal officers and sustained itself through nominal annual dues of approximately 10,000 won to minimize financial barriers. Consequently, the organization established itself as an artistic community where members independently executed their projects outside the conventional caregiving matrix. This paradigm shift yielded highly successful results. The creative process became entirely unconstrained, evolving into a natural daily routine. On scheduled days, members engaged in their work without temporal limitations, exercising complete autonomy over their attendance. They independently managed the available materials, organized the workspace, and archived or exhibited their pieces in designated areas. While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still commuted with personal assistants or guardians, a substantial number

쾌적하였다.

그렇다고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파트너십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천군평생학습센터가 추가된 것이었다. 활동실과 비용은 서천군평생학습센터가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복지 지원은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금년에는 서천군관광문화재단이 참여하게 되었다.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여 왔는데 전시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내에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용 작업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여전한 한계이기는 하지만, 예술쉼터의 회원들의 자발적인 미술활동이 지역사회의 시민활동으로 자리잡은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런 다행스러운, 아니 정말 기가막힌 길을 개척해온 셈이다. 나의 출발은 아들 진우로부터였지만, 하다보니 발달장애인들이 모였고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었다. 그렇게 지역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서, 혹은 이런 저런 지원 구조에 의지하면서 길이 형성된 셈이다.

흔히 작가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분들 또한 당연히 작가이다. 10수년, 혹은 수년 씩 스스로 미술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왜 작가가 아니겠는가? 게다가 다들 자신만의 멋진 작업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멋진 작품들이 관객이나 소장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종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빛나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말이다. 물론 내가 사업가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뛴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increasingly achieved the independence to visit the studio unaccompanied.

Nonetheless,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welfare center was sustained. The institution accommodated the new structure by conducting its official programs within the parameters of my personal studio. The center provided funding for art supplies and deployed specialized instructors, which consequently enabled the club to remain viable with an annual membership fee of merely 10,000 won. From the institutional standpoint, this collaborative model served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overcome their facility limitations. Thus, the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established itself as a self-governing artistic community led by its members, while simultaneously securing consistent welfare benefits from the public sector.

Then, last year, the *Seo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began participating. After Seocheon-gun was selected for the *Lifelong Learning C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ject, they proposed that we conduct our activities there. Although we had been using my studio for our activities, I had been thinking that this was something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ventually take over. The downside was that the classrooms at the *Seo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were not provided exclusively for our use. We decided to resolve this issue over time. Above all, I made it clear that our activities were not simply a matter of using the program's facilities. Therefore, I insisted that we must be able to use the space year-round and that its nature as a studio must be clearly defined. Although the conditions were not ideal, we agreed on the basic direction

거기까지는 엄두를 낼 수 없다.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하니 말이다. 지원 체계가 따로 마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만큼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서천군이나 혹은 이 이상의 기관에서 힘을 써서 전용 작업장을 마련해주기만 한다면 더 좋은 일일 것이다. 일상적으로 미술활동을 하면서 늘어가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 않겠는가 말이다.

and moved our workspace to a classroom at the *Seo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The biggest advantage was its excellent accessibility. It was a barrier-free space, and facilities such as restrooms were well-equipped, making it comfortable to use.

However, this did not mean that the partnership with the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had ended. Rather, the *Seo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had been added to the partnership. The collaboration was structured so that the *Seocheon-gun Lifelong Learning Center* provided the activity space and funding, while the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handled the programs and welfare support. This year, the *Seocheon County Tourism and Culture Foundation* also joined the partnership. The foundation, which has held annual exhibitions, agreed to take on the role of providing a stable exhibition space and supporting the exhibitions. As a result, the project succeeded in establishing a stable foundation for activ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lthough the lack of a dedicated studio remains a limitation, the fact that the voluntary art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have taken root as civic activ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considered a major achievement.

Looking back, it seems we've managed to blaze a trail—one that's not just fortunate, but truly remarkable—despite all the ups and downs. My journey began with my son, Jinoo, but as I went al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athered around me, and a community took shape. a path has

gradually emerged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local community, and by relying on various support systems.

The term artist is often used to refer to those who achieve social success. But these individuals are, of course, artists as well. Why shouldn't those who have been pursuing their own artistic endeavors for a decade or more be called artists? Moreover, they have all established their own unique and wonderful artistic worlds. The only regret is that the conditions haven't been created for such wonderful works to reach audiences or collectors. And yet, works of unimaginable brilliance often emerge. True, if I were to become a businessman and run around tirelessly, it might be possible. But I cannot bring myself to go that far. After all, I have my own life to live. I think it would be wonderful if a separate support system were established.

But even if that isn't possible, isn't the current situation good enough? It would be even better if Seocheon-gun or a higher-level government agency could step in and provide a dedicated workspace. After all, isn't there a certain beauty in seei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growing old while engaging in art on a daily basis, just as they are?

선사랑드로잉회 Sunsarang Drawing Group

2000년 6월, 작은 야외 스케치 모임에서 시작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술 공동체이다. 장애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형화된 미의 기준에서 벗어난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을 탐구해 왔다. 장애인의 기초 미술 교육을 통해 장애 예술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정기적인 드로잉 워크숍을 운영한다.

Sunsarang Drawing Group is an art community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founded in June 2000 as a small outdoor sketching group. Grounded in disability identity, the group has explored the forms and movements of the body beyond standardized norms of beauty. Through regular drawing workshops, they have sought to broaden the horizons of inclusive art while providing foundational art education for its participants.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캔버스 천에 아크릴, 가변 크기.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Acrylic on canvas,
variable installation.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
2026, 싱글채널 비디오, 8분 39초.
영상 프로덕션: 소농지. 모두미술공간 제작지원.

총괄기획: 문승현
안무가: 노경애
안무보조: 김명신, 김한비
참여작가: 곽현진, 김경아, 김정옥, 문은주,
서주현, 유혜진, 이순화, 이윤정, 임현주
작가보조: 손혜연, 오란석, 임영숙.

Body Croquis: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2026, Single-channel video, 8 min 39 sec.
Film Production: sonongji.
Supported by
Modu Art Space.

Project Lead: Moon Seunghyun
Choreographer: Ro Kyung Ae
Assistant Choreographers: Kim Myeong Shin,
Kim Hanbee
Participating Artists: Kwack Hyun jin, Kim Kyung Ah,
Kim Jungok , Moun Eunjoo,
Seo Ju Hyun, Yoo Hye jin,
Lee Soonhwa, Lee Yoonjung,
Lim Hyeonju
Artist Assistants: Son hye youn, Oh Rhanseok,
Lim Youngsook.









문승현

우리 몸 크로키 - 공간 그림 퍼포먼스에 부치는 짧은 글

Moon Seunghyun

Croquis of Our Bodies - A Short Text for a Spatial Drawing Performance



오디오로 듣기

프랑스 철학자 장-뤽 낭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유한한 존재들이 서로에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마주하는 실존적 조건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만들기보다 만들기를 그칠 때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처한 실존적 조건을 말함으로써 공동체의 폭력성을 거두고 존재의 공간으로 나가게 합니다.

저는 이번 작업에 참여한 퍼포머들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훌륭하게 잘 만들어야 하는 미술계라는 공동체로부터 그것을 멈추는, 멈추게 하는,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공동체로의 이행,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미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실력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타인을 마주하는 공간으로써 공동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유한한 존재들이 서로에게 열려 있는 관계의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어이 머물러 기대어 설 때 우리는 그리지 않고 그려지는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The French philosopher Jean-Luc Nancy argues that a true community is not a matter of becoming one, but a state in which distinct, finite beings remain open to one another.

Community is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acknowledging human finitude and frailty and turning to face the other. It reveals itself, he says, not in making something but in ceasing to make.

Nancy's notion of the *inoperative community* addresses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 beings as social subjects. In doing so, it withdraws the inherent violence of community and opens a passage toward being itself.

For this project, I wanted the performers to experience freedom. Freedom from the art world as a community that demands we make something, make it excellently. What I envisioned was a shift—a transition from a community

organized around production to a *community of un-working*, from a community that compels us to make to one that enables, indeed insists upon, cessation. This transition is the core of what this project seeks to achieve.

My hope is that this became not an attempt to build a community of influence and accomplishment within the art world, but a time in which each member came to discover community as a space for meeting others.

When finite beings, each distinct from the rest, willingly embrace a state of relation in which they remain open to one another—and at last stay, lean, and stand together—we encounter a performance in which we do not draw, but are drawn.

이정현

Lee Jeonghyeon

이정현은 소리를 색으로 인식하는 색청 공감각자이자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첼리스트다. 어린 시절부터 떠오르는 색과 점으로 선율을 옮겨 그린 ‘그림 악보’를 창작해 왔으며, 한 옥타브의 12음을 고유한 색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했다. 그의 그림 악보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모티브가 되어 영화 소품으로도 활용된 바 있다.

음악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시작한 고유한 표현 방식이었다. 소리를 듣고 리듬과 화음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정현은 시각과 청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감각을 경험했고, 이런 감각적 전환은 이후 ‘그림 악보’ 작업을 이어가는 바탕이 되었다.

흰 종이 위에 찍힌 색색의 점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 옥타브와 12음계의 질서가 자리한다. 시각과 청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각 체계 속에서 그림 악보는 자신만의 고유한 암호이자 자율적인 언어로, 세계와 관계 맺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준다.

Lee Jeonghyeon is a cellist with chromesthesia, perceiving sound as color and expressing music through images. Since childhood, she has created *pictorial scores*, drawing melodies and scales with the colored dots that arise in her mind. Through this practice, she has developed a distinctive visual language that corresponds to the twelve notes of an octave with specific colors. Her *pictorial scores* later became a motif for the film *No Other Choice* and were used as props in the movie.

Music has been her unique form of self-expression since childhood. Through listening to sounds and responding to rhythm and harmony, She experienced a state in which sight and hearing naturally connected. This sensory shift later became the foundation for her work on *pictorial scores*.

The colorful dots on white paper may appear randomly scattered, but within them lies the order of an octave and a twelve-note scale. The colors and arrangement of the dots sing in their own way within the artist’s world, which crosses the boundaries between sight and hearing. The *pictorial scores* become the artist’s unique code and autonomous language, revealing her own way of relating to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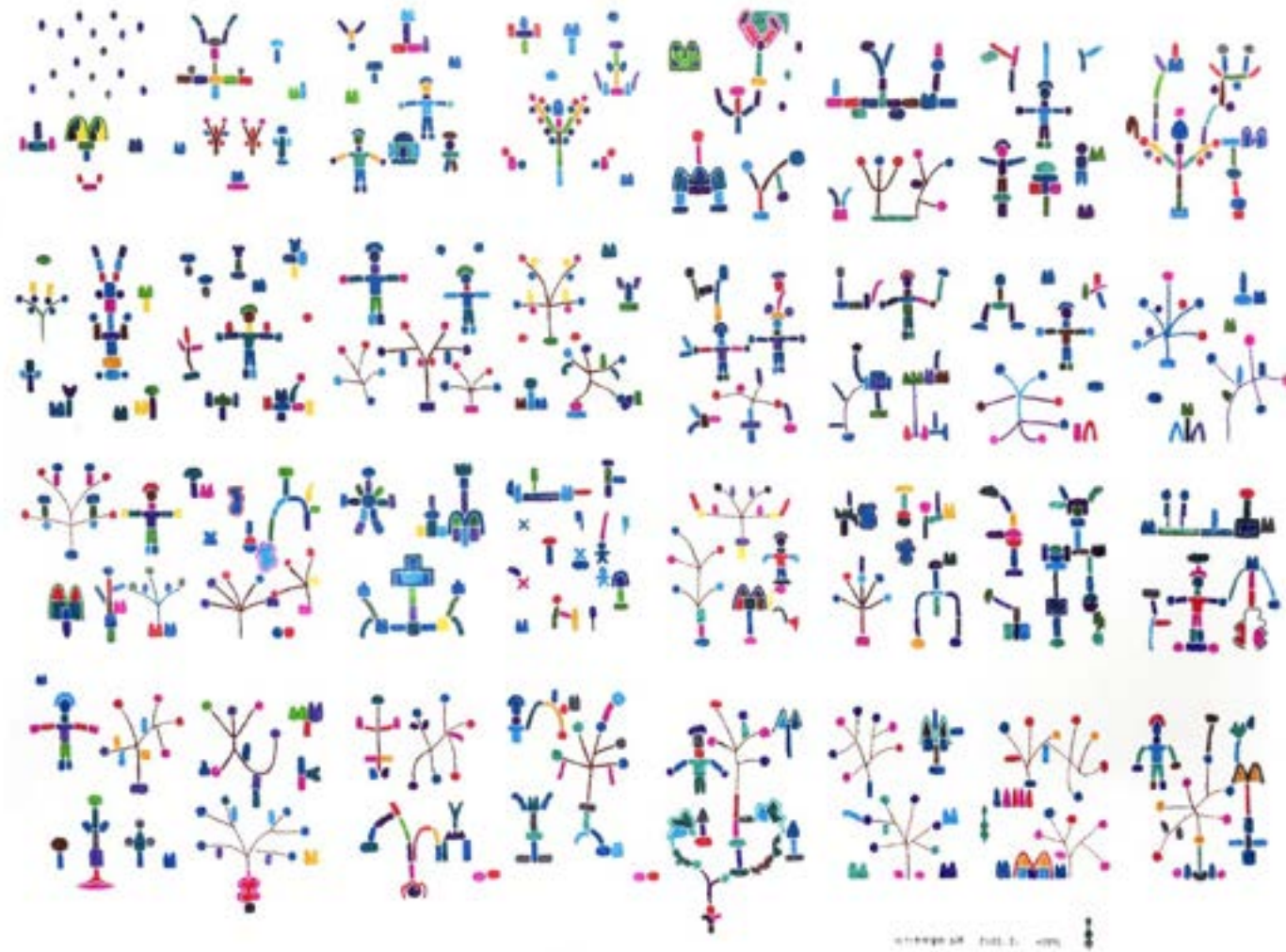
그림 악보 <애기동백꽃의 노래>를
모티브로 구성된 가구와 오브제
2026, 나무, 점토, 혼합매체,
188 × 120 × 45 cm.
제작: 마음스튜디오.

*Furniture and objects inspired
by the Pictorial Scores Song
of the Little Camellia*
2026, wood, clay, mixed media,
188 × 120 × 45 cm.
Production: Maum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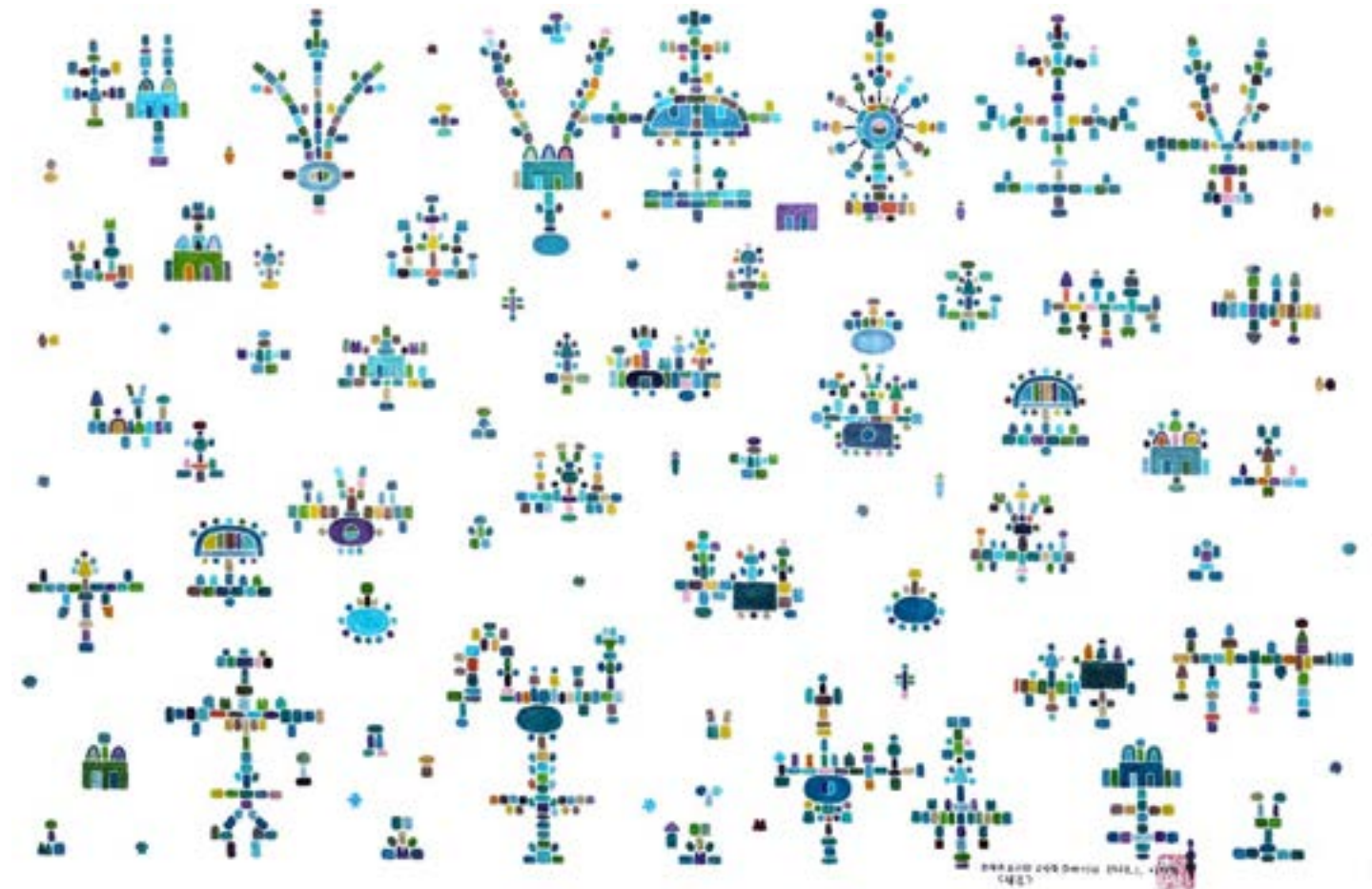
〈애기동백꽃의 노래〉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72 × 92 cm.

Song of the Little Camellia
2023,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72 × 9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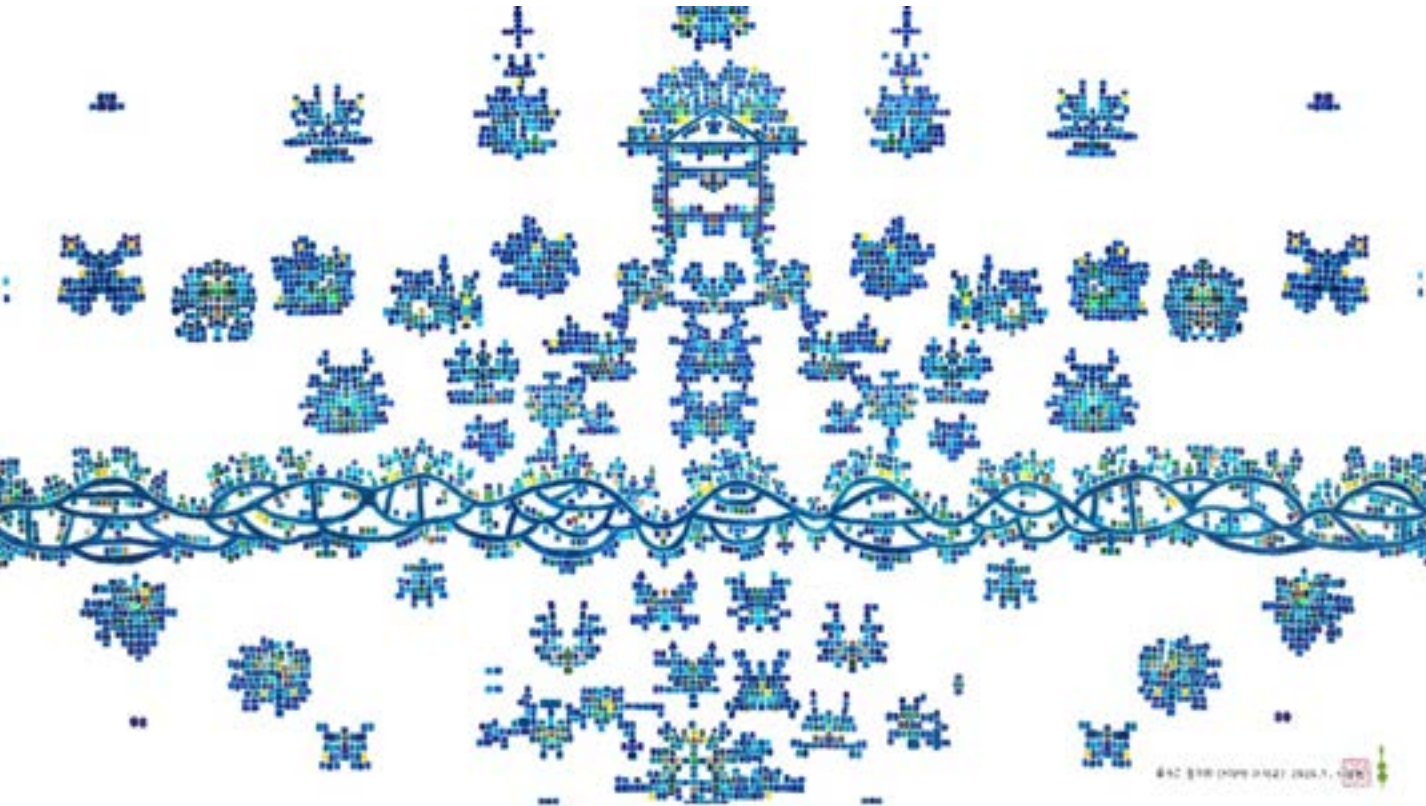
〈프랑크 첼로 소나타 A메이저, 2악장〉
2023,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유성매직, 52.5 × 72 cm.

C.Franck Cello Sonata
in A Major, 2nd mov.
2023, marker, name pen,
oil-based marker on watercolor
paper, 52.5 × 7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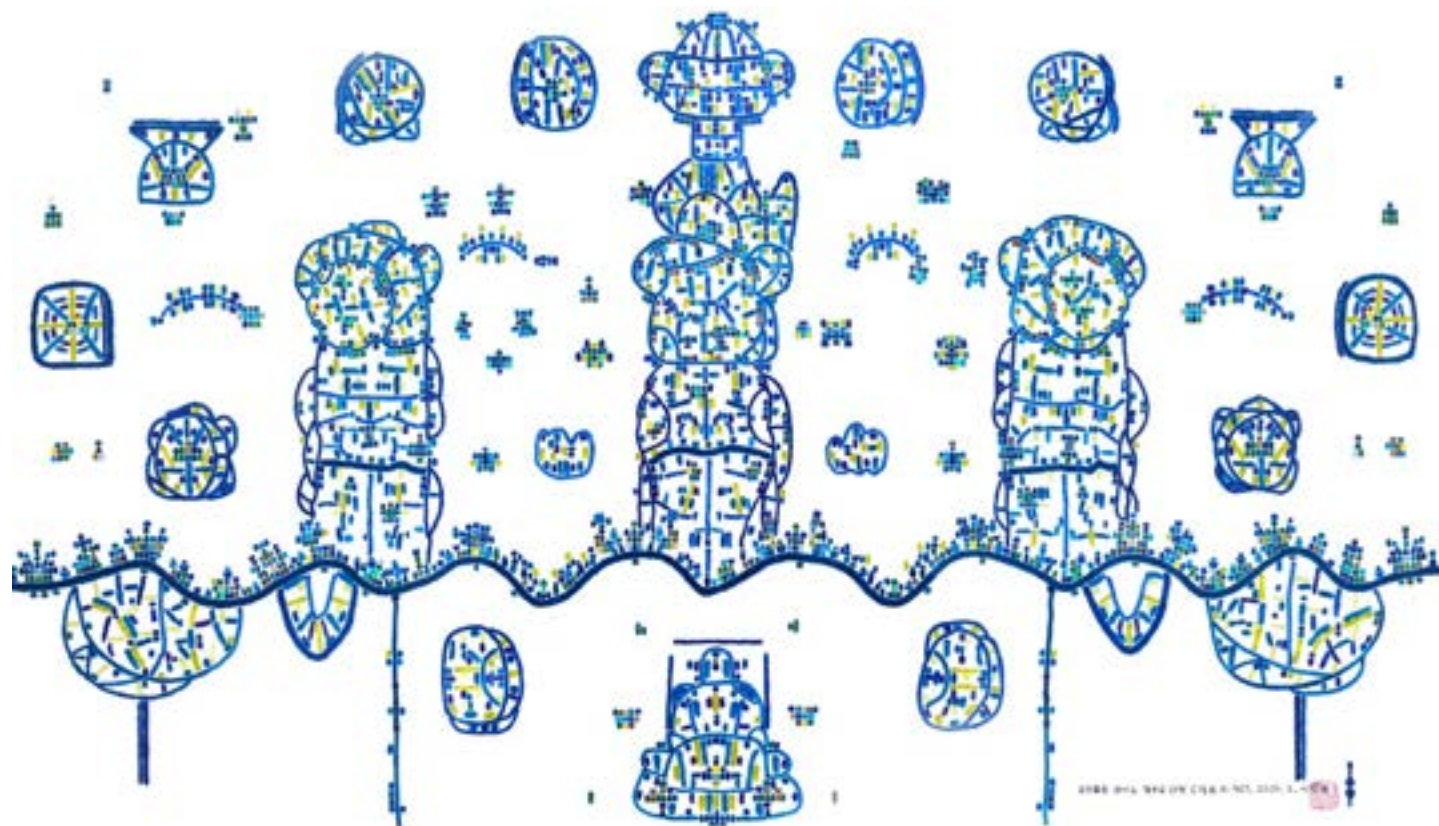
〈숲속은 즐거워(이정현 작곡곡)〉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9 × 92 cm.

Joyful Forest(Original Song)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9 × 92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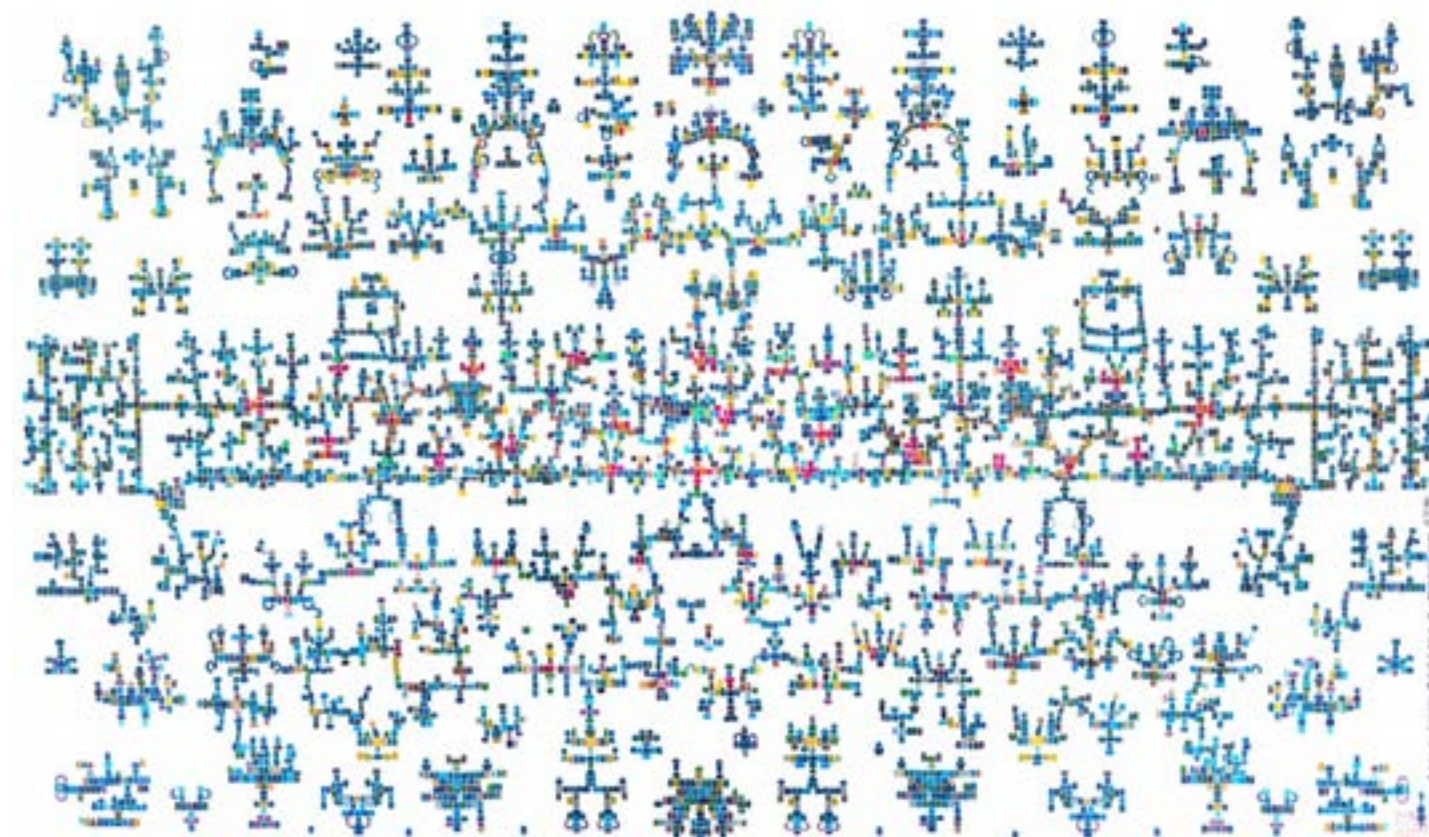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C메이저, K.467〉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8 × 91 cm.

*Goltermann Cello Concerto
No.1 in A minor*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6 × 84 cm.



〈골터만 첼로 협주곡 제1번 A마이너〉
2024, 수채화지에 마카펜, 네임펜,
56 × 84 cm.

*Goltermann Cello Concerto
No.1 in A minor*
2024, marker, name pen on
watercolor paper, 56 × 84 cm.



<하이든 교향곡 45번 Fsharp마이너 “고별”:
1악장 알레그로 아사아>
2025, 수채화지에 마카펜,
57.5 × 76 cm.

*Haydn Symphony No.45 in
F-sharp minor “Farewell”:
I. Allegro assai*
2025, marker on watercolor
paper, 57.5 × 76 cm.



146	라운드 테이블: <연립의 기술: 지지분하고 찬란한>
154	워크숍 <함께 조각>
164	교육 프로그램 <비틀비틀 춤추는 드로잉>
174	워크숍 <움직임 그림>
184	개막식

2026.4.25 (토) 14:00-16:00

라운드테이블 〈연립의 기술: 지저분하고 찬란한〉

라운드테이블 〈연립의 기술: 지저분하고 찬란한〉은 돌봄과 상호의존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해온 참여자들이 모여, 관계를 감각하고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 날의 대화는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역할과 책임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불균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돌봄을 수행하고 돌봄을 받는 상호적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고민들이 공유되었으며, 관계의 균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다시 조정되는지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

[2022 투데이신문 문화 10 Picks]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수다...작품을
빛낸 소수자 캐릭터

‘딩동댕 유치원’ 휠체어를 탄 하늘이

“장애인·다문화 섞인 ‘딩동댕 유치원’, 우리 사회 지향점”

[미오 창간기획 9] 딩동댕유치원 ‘휠체어 탄 어린이’ 등장이 의미하는

“장애특정...” “아이들 역시 편견 없어요”

이고 편견 가득했던 한국 미디어의 재현
‘휠체어 탄 어린이’, JTBC-SBS 장애인 조영 등 변화
“다행” 미디어 다양성 극현 위 고민 필요

그리고 23년도에 자폐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는 사실 더 폭발적
으로 반응이 컸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서야 이렇게 고작 여기 한 군데서 이렇게
어린이 캐릭터가 나온 것밖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구나.
많이 느꼈고, 사실 아쉽게도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봄에 이 캐릭
터들은 다 사라졌어요. 다시,
되게 좋은 반응을 3년간 제가 했었지만 내부적인

관계의
기술
가
가
가



김인규 작가
30년 가까이 미술교사를 했고, 개인작업과 함께 다양한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15년 넘게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미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실험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지현 PD
2010년 EBS에 입사하여 15년 넘게 교육 및 어린이 프로그램 PD로 재직 중이다. 2022년부터 3년간 <딩동댕 유치원>의 책임프로듀서로 장애, 다문화 등 다양성 상징하는 캐릭터를 선보이며 어린이 방송의 패러다임을 넓혔다.



최선영 기획자

문화예술기획자.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2007년부터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예술교육 보조자, 강사,
기록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 연구하고 있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

2016년 '장애가 무의미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동조합
'무의'를 설립, 운영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 지도와
이동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동권과 장애에 대한 인식
캠페인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유시아

장애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겨레 <똑똑!한국사회>등에 칼럼을
기고해 왔다.

워크숍 <함께 조각>

진행: 라움콘(Q레이터, 송지은)

도움: 김이중, 하영미, 허호, 송지희

라움콘의 <함께 조각>은 두 사람에서 네 사람이 하나의 조각을 함께 착용하고 움직이며 서로의 감각과 속도를 조율하는 참여형 작업이다. 참여자는 한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조각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후드 형태의 조각을 입고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타인의 몸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조각을 함께 입는 순간 몸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서로의 호흡과 균형, 속도에 감각을 기울여야 한다.

이 작업은 관계를 이해의 문제가 아닌, 감각의 문제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안내에 의지해 이동하거나, 하나의 옷 안에서 움직임을 함께 조율하는 과정은 돌봄이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감각을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관계적 실천임을 드러낸다. 몸을 움직이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망설임과 긴장, 안도와 친밀감은 반복해서 교차하고 재편된다.

완전한 기댐도, 완전한 희생도 없다. 장애와 돌봄의 관계는 고정된 역할이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응답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삶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유연하고 양가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관계 또한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맞춰내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각하고 응답해보려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때로는 불편하고 서툴지만, 바로 그 미완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와 연결되는 방식을 다시 배우게 된다.









워크숍 〈둥지의 풍경〉

〈둥지의 풍경〉은 무언가를 완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계를 감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었다. 참여자들은 상자 안의 재료들을 꺼내 만지고, 비비고, 두드리며 각자의 속도로 반응했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재료의 질감을 오래 탐색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연결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각과 움직임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었다.

사전 워크숍을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모두 전시의 일부가 되었다. 만들어진 작은 둥지들은 전시장 곳곳에 놓여 다른 작품들과 자연스럽게 뒤섞였고,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풍경으로 변화해 갔다. 작업은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고정되기보다, 참여자들의 손길과 관계를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했다.

계획된 형태를 구현하는 설치 작업이 일정한 구조를 전제한다면, 〈둥지의 풍경〉은 참여자들의 감각적 표현과 우연한 연결,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작업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느슨하게 열려 있는 구조 안에서 누군가의 망설임이나 반복되는 움직임,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이는 태도까지 모두 전시의 일부가 된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손을 거친 흔적과 흐트러진 배치, 그리고 미세한 웅성거림 같은 감각들이었다. 쉽게 붙잡히지 않는 이런 잔여들은 어쩌면 관계와 닮아 있다. 함께 머물렀던 시간의 잔온이 때때로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전시 중 매주 금요일 10:00-11:30

교육 프로그램

〈비틀비틀 춤추는 드로잉〉

기획: 푸꾸포

진행: 손배영, 이현경, 유화경

조금 엉뚱하고 뻘뻘해도, 우리 같이 춤출 수 있을까?









워크숍 〈움직임 그림〉

참여작가: 김경아, 김정옥, 문은주, 서주현,
유혜진, 이순화, 이윤정, 임현주, 오란석
진행: 노경애, 김한비, 정재필

선사랑드로잉회의 〈움직임 그림〉은 종이 위에 그려진 선을 따라 움직이며 바닥과 공간에 드로잉을 펼쳐가는 신체 드로잉 워크숍이다. 참여자들은 종이 위의 선을 몸으로 따라 그리며 움직이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다른 움직임을 불러낸다. 워크숍은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손짓, 휠체어 바퀴의 이동, 바닥과 신체의 접촉, 공중으로 확장되는 동작 등 다양한 움직임은 드로잉의 요소로 작동하며 공간에 축적되었다. 서로 다른 신체 조건과 감각에서 비롯된 움직임들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드로잉과 움직임은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형식을 변화시키는 매개로 기능했다. 선은 신체의 동작으로 전환되고, 신체의 동작은 다시 시각적 흔적으로 환원되며 반복적으로 확장되었다. 서로 다른 신체 조건은 제약이 아닌 작업의 구성 요소로 작동하며, 공간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개막식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관계의 기술: 기꺼이 기어이 기대어»

2026.4.16 — 5.23

모두미술공간

이사장
방귀희

사무국장
고준환

전시장운영부

총괄
최지아

운영
하원빈

기획, 연구
김국연, 박시내, 최인경

시설, 접근성
김도영

홍보, 프로그램
정세영

참여작가

김진우, 동지, 라움콘,
발달장애인 독립공간 예술쉼터,
선사랑드로잉회, 이정현

전시장 운영

매니저
이소현, 서민혜

주최 및 주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스태프

강민지, 박민진,
김민지, 조성경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도슨트

성수정

협력

서천군,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천문화관광재단

기획

박시내

코디네이터

정지윤

그래픽디자인

오디너리피플

공간디자인

표표건축사사무소

프로덕션

마음스튜디오

미디어

만리아트메이커스

접근성 콘텐츠 제작

조금다른 주식회사

음성해설 제작

한국콘텐츠접근성연구센터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al Center

Chairperson
Bang Guihee

Secretary General
Ko Junhwan

Exhibition Management
Department

Head of Department
Choi Jeeah

Operations
Ha Wonbin

Curatorial & Research
Kim Kook Yeon,
Park Sinae, Choi In-gyeong

Facility & Accessibility
Kim Doyoung

PR & Programs
Jeong Seyeo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2026.4.16 — 5.23

Modu Art Space

Participants

Kim Jinoo, Dungji,
laumkon, Independent
Developmental Disability
Art-club, Sunsarang
Drawing Group,
Lee Jeonghyeon

Exhibition Operations

Managers

Lee Sohyeon,
Seo Minhye

Staff

Kang Minji,
Park Minjin,
Kim Minji,
Jo Sungkyoung

Organized by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al Center

Sponsor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collaboration with
Seocheon-gun,
Seocheon-gun
Rehabilitation Center,
Seocheon Culture
Tourism Foundation

Curated by
Park Sinae

Exhibition Coordinator
Jeong Jiyun

Graphic Design
Ordinary People

Space Design
PyoPyoArchitects

Production
MAUM STUDIO

Media
Manriart Makers

Accessibility Content
A Little Different

Audio Description
Production
Korea Content
Accessibility
Research Center

